

## 로스 역 누가복음서의 서지 사항과 번역의 성격

민영진\*

이 글은 최초의 우리말 성서인 로스 역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의 서지 사항<sup>1)</sup>과 번역의 역사적 배경<sup>2)</sup>, 번역 과정, 번역 대본과의 비교에서 나타나는 번역의 성격<sup>3)</sup>, 그리스어 원문과의 비교에서 나타나는 본문비평의 정도, 로스 역의 반포로 이어지는 권서 중심의 성서 운동, 로스 이후 계속 이어지는 우리말 번역성서에 끼친 로스 역의 영향 등을 고찰하면서, 로스와 로스의 번역 팀이 우리 한국 교회의 성서 운동에 끼친 공헌을 살피는 것이다. 로스 역이 국어학이나 우리말 연구에서 가지고 있는 의의나 중요성에 관해서는 필자의 능력 밖이므로 이것은 다루지 아니하였다<sup>4)</sup>.

\* 대한성서공회 부총무, 구약학

1) 로스 역 누가복음서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한 것으로서는 金良善, “Ross Version 과 韓國 Protestantism”, 圓峯劉鳳營先生古稀紀念史學論叢 「白山學報」 제3호 (1967.11), 420-424쪽. 복사본은 김정현, 「羅約翰 (John Ross) 한국의 첫 선교사」 (大邱啓明大學校 出版部, 1982). 71-120쪽에서 볼 수 있다. 특히 III장 “Ross 牧師와 義州靑年들의 한글 聖書의 譯刊”은 로스 역 누가복음서에 관한 소개이다; 李元淳, “聖書國譯史論考”, 「民族文化」 제3집 (1977), 圓峯劉鳳營先生八旬紀念特輯號, 32-50쪽; 서지학적 고찰로는, 金良善, “韓國基督教 初期刊行物에 對하여”, 「金成植博士華甲紀念論叢」 (1968), 586-588쪽; 이응호, “최초의 한글 성경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 「국어교육」 44-45 합병호 (1983.2), 421-455쪽; 이만열, “로스본의 번역·출판·권서 사업 (I)”, 「빛과 소금」 1987년 8월호, “로스본의 번역·출판·권서 사업 (II)”, 「빛과 소금」 1987년 9월호, “로스본의 번역·출판·권서 사업 (III)”, 「빛과 소금」 1987년 10월호.

2) 홍이섭, “존 로스의 한글 성경”, 「성서한국」 1956년 10월호; 이덕주, “초기한글성서 번역에 관한 연구 - 특히 성서 번역자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글성서와 겨레문화」 (기독교문사, 1985); 같은 저자의 “한글성서 번역에 관한 연구 - 1882~1938년 간행된 성서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민족운동」 (보성, 1986); 같은 저자의, 「초기한국기독교사연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5), 320-422쪽.

3) 번역 문학사의 관점에서 이 책을 다룬 것으로서는, 金秉喆, 「韓國近代翻譯文學史研究」 西洋文學移入史研究 第一卷 (乙酉文化史, 1975), 특히 26-72쪽; 이환진·전무용 공동집필, “「예수성교전서」 고찰”, 「성서한국」 33권 1호 (1987년 6월), 8-18쪽. 이환진과 전무용의 글은 초기 한글 성서의 번역과 출판에 관한 역사, 로스 역의 대본 문제, 번역 방법과 번역 원칙, 낱말 선택의 특징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 1. 서지 사항

책이름은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이고, 출판연도는 ‘광세(光緒)’ 8년 곧 서기 1882년이다. 간행처는 중국의 심양에 있던 문광서원(文光書院)이다. 종이는 그 무렵에 흔히 사용하던 당지(唐紙)나 한지(漢紙)인 것 같고, 제본은 외줄 끈으로 네 번 꿰맨 한식 제본이다. 책 크기는 가로 140밀리미터에 세로 235밀리미터이다. 쪽 수는, 앞 뒤 표지 외에, 누가복음서 본문이 든 장, 용어를 해설하는 부록 ‘강명 편(講明篇)’<sup>5)</sup>이 한 장, 이렇게 모두 선두 장인데, 우리의 쪽 개념으로 계산하면, 낱장 하나가 두 쪽으로 접혀 있으므로, 104쪽이 된다. 매 낱장 왼쪽 가 아래 부분에는 한문 숫자로 낱장의 일련 번호가 표기되어 있다. 편집은 한글 전용의 가로쓰기로 되어 있고, 장 표시는 ‘누가데 ...장’이라고 한글로 적고, 절 표시는 전혀 하지 않았다. 띄어쓰기도 되어 있지 않다. 다만, 대두법(擡頭法)이 활용되어, ‘하느님’ ‘쥬’ ‘예수’ 등 존경하는 이름이나 칭호 뒤에 빈칸을 두는 뒤 띄어쓰기와 이름이나 칭호 앞에 빈칸을 두는 앞 띄어쓰기를 함께 보이고 있다. 고유명사는, 더러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해당 이름 우측에 외줄을 그어

4) 여기에 관해서는, 兪昌均, “國譯聖書가 國語의 發達에 끼친 影響 - 特히 語彙의 改新面을 中心으로 -”, 『東西文化』 창간호(대구계명대학 동서문화연구소, 1967), 59-75쪽; 金永德, “諺解文體와 聖書翻譯體와의 關係 研究”, 『韓國文化研究院叢論』 제14집(이화여자대학교, 1969), 55-77쪽; 羅采雲, “國譯聖書에 對한 國語學的 考察 - 聖書國譯의 變遷過程을 中心으로 -”, 『敎會와 神學』(장로회신학대학, 1971), 188-222쪽; 최태영, “初期翻譯聖經研究 I”, 『崇田大學校論文集』 13(1982), 37-68쪽. 이것은 「예수성교전서」에 나타난 음운 현상에 관한 연구이다. 후속(II와 III) 연재는 「한글성서와 거래문화」(기독교문사, 1985), 269-301쪽, 「그리스도와 거래문화」(기독교문사, 1987), 165-204쪽에서 볼 수 있음; 정길남, 「19세기 성서의 우리말 연구」(서광학술자료사, 1992), 1-23쪽, “개화기 번역 성서의 음운 고찰 - 로스의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박창해, “로스 「예수성교전서」에 쓰인 한국어 문법 구조”, 『한글성서와 거래문화』, 기독교문사, 1985; 황희영, “한국어 호격조사의 한 연구 - 1800년대 한글성서문장 호격조사의 통사적 의미 기능 -”, 『한글성서와 거래문화』, 기독교문사, 1985, 331-341.

5) 한글로만 적힌 ‘강명편’의 한자를 講明篇으로 써야 할지 講名篇으로 써야 할지 확정짓기가 어렵다. 이진호씨는 그의 ‘한국성서 서지목록 정리’(『神學思想』 1984년 여름호)에서 ‘講明’이라 쓰고, 이만열·옥성득, 『대한성서공회역사 I』는 ‘講名’을 쓰고 있다(68쪽). 전자는 ‘강명(講明)’이라는 말이 ‘강구(講究)하여 밝힌다’는 뜻으로 우리말 사전에 올라 있으므로 이 말을 쓰는 것 같고, 후자는 이 책의 번역자들을 대표하는 존 로스(John Ross, 羅約翰)가 강명편을 영어로 ‘Page Explaining Names’라고 한 것을 고려한 것 같다.

표시하였다. 문단 구분은 전혀 되어 있지 아니하다. 인쇄는 납 활자 인쇄이다. 미국성서공회 도서관에 두 권이 있고, 케임브리지 대학교 도서관 안에 있는 영국성서공회 도서관에 책 한 권과 마이크로 필름 한 점이 있다.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자료실에도 한 권이 있다. 이 책이 국내에는 숭실대학교 기독교 박물관에 한 권이 있고, 대한성서공회 성서학 문헌정보 자료실에 책 한 권과 마이크로 필름 한 점이 있다.

## 2. 서지 사항 해설

### 2.1. 책이름

책이름은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이다. ‘예수성교’라는 말은 ‘신약’을 가리킨다. 여기 ‘예수성교’라는 말은 로스 역에서는 ‘신약’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이름의 기원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이미 중국의 한문성경이 ‘신약전서’와 ‘구약전서’라는 명칭을 쓰고 있고, 이 둘을 합쳐서 ‘성경전서’라고 하는 것이 확정된 마당에서 왜 이런 ‘예수성교’라는 말을 쓰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다<sup>6)</sup>.

‘성교’는 ‘성교(聖敎)’의 개화기 발음 표기이다. 책이름 첫 네 글자는 특별히 크고 굵은 붓글씨체로 썼다. 한 글자의 너비와 길이가 각각 2센티미터 정도 되는 크기이다. ‘누가복음전서’는 이것보다 1/2 정도로 축소하여 썼다.

공관복음서의 셋째 복음서의 책이름을 ‘누가복음’이라고 번역한 것은 이것이 처음인 것 같다. 우리 나라 천주교에서 1892년 이전에 나온 것으

6) 1883년에 출간된 「예수성교성서 누가복음/대자형적」, 1883년에 다시 출간된 「예수성교성서 요안나복음」, 1885년에 출간된 「예수성교성서 요안나복음 이비쇼셔신」 등의 이름에서 ‘예수성교성서’라는 책 이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 ‘성교성서’는 ‘聖敎聖書’의 우리말 음역이다. 이러한 이름을 붙이게 된 배경에 관한 연구는 별도의 과제이다. 우리 나라 개신교 역사에서는 ‘성경(聖經)’이라는 용어보다는 ‘성서(聖書)’라는 용어가 더 일찍부터 쓰이고 있다. 1881년 10월에 출간된 「예수성교문답」에서도 ‘성서(聖書)’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다. “문: 이성세가무어시뇨 답: 넷적언약한것과신루이 언약한칙이니라”. 「1881년 10월에 출간된 「예수성교요령」에도 ‘신약전서(新約全書)’라는 말이 나온다. “신약전세가이습칠편인데네편은예수의너럭이요...” 이렇듯 ‘성서’라는 말도, ‘신약전서’라는 말도, 이미 1881년 출간물에서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왜 1887년에 출간된 신약을 ‘신약전서’라고 하지 않고, ‘예수성교전서’라고 했는지, 그 이전에 나온 날권 성서들은 신약전서를 왜 ‘예수성교성서 ...’라고 했는지 궁금하다.

로 추정되는 필사본 「聖經(성경) 말구 누가」는, 마가복음서를 ‘말구’라고 하였고, 누가복음서를 ‘누가’라고 하였다. 이 번역의 대본(臺本 Vorlage)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한문 번역본<sup>7)</sup>에는 ‘路加福音傳(로가복음전)’이라고 되어 있다.

‘전서(全書)’라는 말이 ‘어떤 저작을 모아 한 질로 만든 것’이라고 본다면, 누가복음서 한 권을 이렇게 부르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어서 출간되는, 같은 해에 나온, 요한복음서의 경우에도 「예수성교 요안너복음 전서」라고 하여 ‘전서’를 쓰고 있으나, 이 두 경우만을 제외하고는, 그 이후에 나온 날권에서는 ‘전서’를 쓰지는 아니하였다<sup>8)</sup>.

## 2.2. 출판연도

출판 연도가 ‘광세 8년’이라고 되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광세’는 중국 청나라 ‘광서제(光緒帝)’의 다년호(多年號)인 ‘광서(光緒)’를 일컫는 의주 방언의 발음인 것 같다<sup>9)</sup>. 1887년에 출간된 「예수성교전서」에는 ‘광서(光緒)’로 바로 적혀 있다. 광서제는 중국 청나라의 11대 황제로서, 서태후의 옹립으로 4세 때에 황제로 즉위하였으나, 태후의 독재로 17세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친정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청일전쟁 등 내외로 다사(多事)하여 변법 자강(變法自疆)<sup>10)</sup>의 개혁에 착수하였으나, 무술 정변(戊戌政變)으로 유폐된 채 병몰하고 말았다. 그의 사후에 태후가 다시 훈정(訓政)하였다고 한다. 광서제의 재위 기간은 서기 1874 - 1908년이였다. 광서 8년은 서기로는 1882년이고, 우리 나라에서는 이때가 조선왕조의 말기 고종 19년이였다. 나라 밖에서 외국 통치자의 다년호를 쓴 우리말 번역 성서가 출판된 것이다.

7) 超敎派翻譯委員會譯, 「文理 舊新約聖書」(1852년)

8) 누가복음을 한문 성경에서는 ‘로가복음전(路可福音傳)’이라고 ‘전(傳)’자를 썼는데, 로스 역의 ‘전서’가 ‘전서(傳書)’를 뜻할 가능성이 있었을까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전서(傳書)’는 ‘편지를 전한다’는 뜻이므로,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다. 로스 역 신약에서는 ‘전서’가 ‘전서(前書)’를 표기할 때도 사용되었으나, 누가복음서의 경우에는 이것이 해당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가능성 역시 논할 여지가 없다.

9) 「예수성교문답」(1881)이 ‘성서’를 ‘성세’라고 하고, 「예수성교요령」(1881)이 ‘신약 전서’를 ‘신약전세’라고 한 것을 보아서 알 수 있다.

10) “법을 고쳐 스스로 강하게 한다”는 뜻으로, 중국 청나라 말엽에 혁신을 부르짖던 지식인이 내건 표어였다. 강유위(康有爲) 등이 광서 24년에 국난타개를 목표로 혁신 의견을 내놓고 급격한 개혁을 꾀하였으나 수구파의 반대로 실패하였다.

### 2.3. 간행처

심양(瀋陽)의 문광서원(文光書院)이 간행처로 되어 있다. 문광서원은 이 책의 번역자들을 대표하는 존 로스(John Ross 羅約翰, 1841-1915) 목사가 성서 출판에 위하여 만든 출판사이다. 심양은 요녕성(遼寧省)에 속한, 2000년의 역사를 가진 고도(古都)이다. 1625년부터 1644년까지 청조(淸朝)의 도읍이었으나, 북경으로 도읍을 옮긴 뒤에도 계속 심양으로 불렸으나, 한 때 봉천으로 불리기도 했다. 묵덴(Mukden)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것은 심양의 만주어 이름이다. 중국 공산당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옛 이름 심양을 다시 쓰기 시작했다고 한다.

로스 번역 팀이 신약전서 누가복음서를 출간한 1882년에는 이 곳 이름이 ‘심양’으로 기록되었는데, 같은 장소의 영어 표기는 ‘Mukden’으로 적혀 있기도 하다<sup>11)</sup>. 신약전서를 완역하여 출간한 것이 1887년인데, 그 때는 발행처인 문광서원의 위치를 밝히는 도시 이름이 ‘심양’도 아니고, ‘묵덴’도 아닌, ‘성경’이라고 적혀 있다. 이것은 한 때 그 곳이 ‘성경(盛京)’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었던 사정을 반영한다<sup>12)</sup>.

11) 케임브리지 대학교 도서관 한국어 자료 목록: “1882 (St. Luke’s Gospel) (Mukden)/ 1882. 23.5 x 14.5 cm/ -- another copy, presented by J. Ross, Newchang 24 March 82/ -- another copy, presented to NBSS, 1971”

12) 심양은 우리의 역사와도 무관하지 아니하다. 일찍 조선 인조(仁祖) 14년 (1636) 병자호란을 일으킨 청나라는 소현세자(昭顯世子) 등을 인질로 잡아가고, 척화론(斥和論)을 주장했던 홍익한(洪翼漢), 윤집(尹集), 오달제(吳達濟) 등 삼학사(三學士)를 심양으로 끌고 가 처형했으며, 수만 명에 이르는 조선 사람을 포로로 끌고 가서 시장에서 노예로 팔았던 곳이다. 조선 말기부터 일제 시대에 이르기까지 가난과 학정을 피해 많은 조선족이 이 곳으로 이주했었다고 한다. 지금도 조선족이 많이 살고 있다. 심양시 대동구에 있는 동관교회는 존 로스 목사가 세운 중국인 교회인데, 로스 목사가 우리말 성서 번역과 출판 일을 보던 그의 숙소가 지금도 남아 있어 교회의 응접실로 쓰이고 있다. 1995년 4월 24일 그 곳을 방문했을 때, 원로 목사인 82세의 구 야오 주(谷耀祖 Gu Yao Zu) 목사가 우리 일행을 그 응접실로 안내하여, 존 로스 목사가 동관교회와 동북신학교를 세운 이야기를 비롯하여, 로스 목사가 조선말 성서를 번역 출판했던 역사를 개략적으로 우리를 위해 회고해 주었다. 우리 일행은 로스 목사가 살던 그 건물에서 벽돌 두 장을 가져다가 용인에 있는 로스기념관의 벽에 박아 그를 기억하고 있다. 당시 동관 교회에는 6,000여 명의 신도가 있었으며, 주일 예배는 4부로 나누어서 드리고 있다고 하였다. 현역 목사는 50대 말에서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인 루 지 빈(呂志彬 Lue Zhi Bin) 목사였다.

심양시 화평구 서부대로의 서탑(西塔) 거리에 있는 서탑 교회는 조선족 교회이다. 1995년 4월 현재 900-1,000 명의 교인이 주일 예배에 참석한다고 한다. 서탑 교회는 본 교회 외에, 우리 개념의 개척 교회와 같은, 20여 곳의 처소(處所) 교회를 가지고 있다. 처소 교회는, 작은 곳은 60여명, 큰 곳은 400여 명까지 모인다고 한다. 오에은(吳

문광서원은 존 로스 목사가 중국의 심양에다가 세운 선교부의 인쇄소이다. 한글 활자는, 로스의 부탁을 받은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일본 주재 총무 로버트 릴리(Robert Lilley)가 주선하여 1881년 7월에 일본의 요코하마(橫濱)에서 제작된 35,563개의 음절별 연(鉛) 활자였다고 한다.<sup>13)</sup> 인쇄기는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회의 한 독지가의 헌금으로 상해에서 구입한 것이었다고 한다<sup>14)</sup>. 숙달된 인쇄공으로서 전직 인쇄공인 중국인 두 사람이 있었다고 하며, 조선 사람으로서는 인쇄공으로서 전혀 문외한이었던 서간도 출신 김청송(金靑松)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sup>15)</sup> 로스는 인쇄 잉크 제조법까지 관심을 가지고 이들에게 잉크 만드는 법까지 가르쳤다고 한다. 1881년 9월에 시험 인쇄에 들어가 4쪽 짜리 「예수성교문답」과 역시 4쪽 짜리 「예수성교요령」을 인쇄하였다. 이것은 ‘한글로 기록된 최초의 기독교 문서’로서 1881년 10월초에 출간된 것이다<sup>16)</sup>. 이것에 이어 곧 바로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를 인쇄하기 시작하여, 이듬해인 1882년 3월에 인쇄와 제본은 완료할 수 있었다<sup>17)</sup>.

## 2.4. 종이

초판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에 사용된 종이를, 당지(唐紙)라고도 하고 한지(漢紙)라고도 한다<sup>18)</sup>. 종이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발명된 것이다. 서기

---

愛恩) 목사와 송희숙(宋嬉淑), 전성남 전도사가 시무하고 있다. 1913년 5월에 20여 명의 신도로 출발하였다고 한다. 공산 정권 수립 이후에도 명맥을 유지해 오다가 1951년에 목사와 신도들이 추방된 일이 있었고, 1980년까지는 이데올로기와 종교간의 갈등이 빚어내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한다. 문화혁명 당시는 교역자들이 공장 노동자로 차출되기도 했었다고 한다. 옛 서탑교회의 건물은 벽만 남았고, 그 옆에 새로 지은 8층 건물의 서탑교회가 서 있다. 1993년 7월에 준공했는데, 미국과 한국 교회의 지원을 받아 건립되었다고 한다. 2층에는 동북신학교에 입학한 조선족 학생들을 위한 강의실이 있다.

13) Lilley's Letter to Wm. Wright, Jun.1, 1881.

14) Ross's Letter to Wm. Wright, Sep. 29, 1883.

15) J. Ross, "The Christian Dawn in Korea"

16) Ross's Letter to Wm. Wright, Oct. 11, 1881. 「예수성교문답」과 「예수성교요령」은 1881년 10월에 출간된다. 이 두 문헌 전문이 이만열·육성득, 「대한성서공회사 I」(대한성서공회, 1993), 63-65쪽에 실려 있다.

17) 이만열·육성득, 「대한성서공회사 I. 조직·성장파 수난」(대한성서공회, 1993), 61쪽 이하에 로스의 출판 사업에 관한 상세한 보고가 있다.

18) “김양선 목사는 당지라고 하나 한지일 가능성도 많음” 이응호, “최초의 한글성경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 「국어교육」 44-45 합병호 (1983.2), 431쪽.

105년 후한(後漢)의 화제(和帝) 때 채윤(蔡倫)이라는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발명한 것이다. 이것을 후한 때에 발명된 것이라 하여 ‘한지’라고 한다. 그 후 중국에서 생산되어 우리 나라로 들어온 종이를 ‘당지’라고 했는데, 이것은, 중국 고래의 제지법에 따라 닥나무의 껍질과 어린 대나무의 섬유에 가성소다를 섞어서 뜨는 것이다. 색깔은 순백색이며, 표면은 거칠고 잘 찢어지지만, 운필에 편하고 먹물이 잘 흡수되어 서화용에 적당한 것으로 목객이 애용하였던 것이라고 한다.

한지는 달리, 조선종이 또는 조선지(朝鮮紙)로 불리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전통적 방법으로 만든 종이다. 닥나무나 삼지닥나무의 껍질로 만든 것이다.

지금도, 용인시에 있는 민속촌에 가면, 한지 제조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로스 역 누가복음서에 사용된 종이를 육안으로 살펴보면, 1센티미터 간격으로 세로 줄이 그어져 있어서, 한지를 뜯 때의 자욱 같은 것이 선명하게 보인다.

## 2.5. 제본

책 묶음은 외줄 끈으로 네 번 꿰맨 한식 제본이다. 제본 방식은 ‘자루매기’ 식이다. 이것은 필자 생각으로는 이진호 씨가 그의 “한국성서 서지 목록 정리”<sup>19)</sup>에서 처음 사용한 말인 줄로 아는데, 아주 흥미 있는 신조어라고 생각된다. 그의 설명을 그대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자루매기는 한 쪽에만 인쇄한 종이를 인쇄된 면이 밖으로 나오게 하여 반으로 접으면 각 쪽마다 배 쪽이 자루로 되는 인쇄, 제본을 말한다. 그러니까 한 장이 두 쪽이 되는 것이다. 초기 성서의 꾸밈은 거의 이러한 장정이었다.”<sup>20)</sup>

## 2.6. 인쇄와 편집

책 크기는 가로 140밀리미터, 세로 235밀리미터이다. 책 전체의 쪽수는 누가복음서 본문이 쉰한 장, 부록의 성격을 지닌 용어 해설인 ‘강명 편’이 한 장, 모두 쉰두 장이다. 매 장 한가운데 아래쪽에는 한자(漢字) 숫자로 장의 일련 번호가 매겨져 있다. 쉰두 장이면 104쪽이다. 매쪽마다 14행을

19) 「神學思想」 1984년 여름호, 338-368쪽.

20) 「神學思想」 1984년 여름호, 346쪽.

세로로 배열하였으며, 매행마다 28글자(대두를 위해 비운 칸까지 포함)를 인쇄하였다. 매쪽마다 392(28글자 x 14행)개 글자가 들어 있으므로, 누가복음서 본문 102쪽에 인쇄된 글자는 무려 39,984개에 이른다.

#### 누가대일장

디기열어사람이부슬들어우리가운데일운일을괴술히되처음으로부터  
친이보고도를던헌년자우리를준비갓티헌옛기로니또뜻헌여모둔일을자  
세이근원을좃차치레토써귀인데오비노의존전에안달헌문귀인볼니보인  
비의실정을알게헌미라유디왕헤롯씨를당헌여아비아자손의반널에제사  
일음은사카랴요그체는아론의후예일음은이니사빅이니두사람이하느님  
의 압헤서올운자라주의 계명과네를좃차헿헌여흠이업스되다못아들  
이업스문이니사빅이잉티못헌고두사람의나이또한늘그미라마즘사카랴  
그반널을의지헌여제사의직분을하느님의 압페헿헌고제사의규례를좃  
차제비를어더주의 던에들어가분향헌니씨여못빅성은밧게서비더니쥬  
의 사자사카랴의게보이고향단을운컨에서거늘사카랴보고황망헌여무  
셔위헌니사자널너갈으되사카라는무셔위말나너의비년거시이무들너시  
니너의체이니사빅이장차아들을나아너를주리니일음을

위에 인용된 것은 누가복음서 첫 쪽이다. 이 한 쪽에 편집에 관한 여러 가지 특징들이 다 들어 있다. 여기에서는 본문을 편의상 가로쓰기로 인용했으나 원본에서는 세로쓰기로 되어 있다는 점은 미리 밝혀 둔다. 우리나라에서 성서가 번역되고 출판되던 개화기에는 일반적으로 세로쓰기를 하였다. 한문 성경도 모두 세로 쓰기로 편집이 되어 있었다. 아마도 같은 전통을 따른 것 같다.

인용문에서 보다시피, 한글만 쓰기로 한 편집이다. 매쪽 왼쪽 아래에 낱장의 일련번호를 표시하는 한문 숫자 외에, 누가복음서 본문 안에는 어느 한 곳에도 한문 글자가 나오지 아니한다. 한글은 우리의 고유한 문자로서 세종 28년(서기 1446년) 음력 9월 상한(上澣)에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으로 나라글자로 반포되었으나 한문 글자를 숭상해 온 오랜 전통으로, 식자들 사이에서는 한글을 상말이라 폄하(貶下)하여 언문(諺文)이라고 부르면서 잘 쓰려 하지 않았다. 독립신문 등의 신문 잡지가 출현하여 언문일치 운동을 일으켜 한자 전용의 관습을 버리고 국한문을 혼용하도록 한 것이 비로소 고종 31년 곧 서기 1894년 갑오경장(甲午更張) 이후였는데, 그리고 일체의 공용 문서는 한글로만 쓴다는 한글전용 법을 만든 것도 1948년이



었는데, 기독교의 경전인 성서가 이미 1882년부터 한글전용 원칙을 취하였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다. 문단 구분도 없다. 그런데, 자세히 주의해서 보면 본문 안에 군데군데 빈 칸이 보인다.

두사람이하느님의 압헤서올운자라  
 주의 계명과네를좃차헿혀  
 제사의직분을하느님의 압페헿고  
 주의 던에들어가분향헿니  
 주의 사자사카라의게보이고

예수 쏘한밥팀네를밧으며  
 예수 녁넉키성신의감동흔비되어  
 맛당이쥬 너의하느님께 절헿여

빈칸이 있는 곳마다 주의해서 보면 그 앞에 ‘하느님’ ‘주’ ‘예수’라는 말이 나온다. 여러 줄로 써 나가는 글 속에서 경의를 표시하는 줄을 몇 줄 올려 쓰거나, 경의를 표시하는 낱말을 몇 자를 비우고 쓰거나 하는 것을 대두(擡頭)라고 하는데<sup>21)</sup>, 존경하는 이름이나 칭호 앞에 몇 자를 비우는 법도 있고, 뒤에 몇 자를 비우는 법이 있는데, 이 책의 1장 1절에서 5장 7절까지는, 위의 예에서 보듯이, 존경하는 이름이나 칭호 ‘뒤에’ 두 칸을 비우는 대두가 보이고, 5장 8절에서 25절까지는, 아래의 예에서 보듯이, 그러한 이름이나 칭호 ‘앞에’ 두 칸을 비우는 대두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5장 26절에서부터 끝까지는 다시 존경하는 이름이나 칭호 ‘뒤에’ 몇 칸을 비우다가 ‘강명 편’에서는 다시 존경하는 이름이나 칭호 ‘앞에’ 몇 칸을 비운다.

시몬피들이보고 예수의물읍알에업데여  
 같으되 쥬나를써나소서  
 쏘한글어헿니 예수시몬게닐너같으되

21) 이용호, “최초의 한글 성경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 『국어교육』 44-45 합병호(1983.2), 421-455쪽. 이 글은 이 책의 서지 사항 외에, 대두법(擡頭法)에 관한 상세한 설명과 『斥邪綸音』(1839)의 한문본과 한글본, 『독립신문』(1896.9.1)의 논설, 『大韓每日新報』(1908.8.14)의 논설 등에 나타난 대두법의 보기를 제시하고 있다.

### 빅납풍헌년자 예수를보고

성서의 장 표시는, 책이름에서 ‘누가’를 가져 오고, 그 다음에, 한자로 된 수의 앞에 놓이어 차례를 가리키는 접두어 ‘제(第)’를 놓고, 장을 한자 숫자의 음을 쓰고, 끝에 ‘장(章)’자를 붙여 표시하였다. 예를 들면, ‘누가테 일장’ ‘누가테이장’ ... 하는 식으로 표시하였다.

본문 안이나 바깥 어디에도 절 표시는 전혀 없다. 본문에 절을 표시하지 않은 것은, 같은 해 1882년에 출간한 「예수성교 요안니복음전서」와 1883년에 출간한 「예수성교성서 누가복음/테자형적」도 마찬가지이다. 1883년에 다시 출간 한 「예수성교성서 요안니복음」부터 한문 숫자의 절 표시를 해 주었다. 한글전용이라는 것은 본문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절 표시는 한문 숫자이다. 아직 아라비아 숫자가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유명사는 해당 낱말의 오른쪽에 외줄을 그어서 표시하였다. 이것은 중국어 성경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 받은 것이다. 고유 명사 외줄 표시가 더러 빠진 것도 있는데, 이것은 의도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우연한 실수인 것 같다.

## 2.7. 소장처

1882년 3월에 출간된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가, 미국성서공회 귀중 도서 자료실에는 현재 두 부가 있고, 케임브리지 대학교 도서관 안에 있는 영국성서공회 귀중 도서 자료실에는 이 초판 한 부와 그것의 마이크로 필름 자료 한 점이 있다. 1997년 말까지는 인쇄본이 두 부 있었으나, 1998년 1월에 그 중 한 권과, 나머지 한 권을 복사한 마이크로 필름 자료가 대한성서공회로 왔다.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에도 한 부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 우리 나라 안에서는 대한성서공회 외에 숭실대학교 기독교 박물관에 한 권이 소장되어 있다고 한다. 수소문해 보면 이 책의 소장처는, 이것이 우리 나라에 3,000여부 이상 반포된 그 수량을 볼 때, 기관과 개인을 포함하여, 의외로 더 있을 수도 있다.

대한성서공회는 6.25 전란 직후 건물 화재로 귀중한 자료를 거의 상실하였다. 1887년의 로스 역 「예수성교전서」는 가지고 있으나, 최초의 우리 말 성서인 1882년판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를 소장하고 있지 못하여 늘 아쉬움이 컸다. 오래 전부터 영국성서공회에 요청하여 두 권 중 한 권을

대한성서공회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수년 동안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김호용(金曉鎔) 총무의 끈질긴 요청으로, 드디어 대한성서공회는 영국성서공회 니일 크로스비(Neil Crosbie) 총무로부터 1997년 12월 18일에 반가운 전송 편지 한 장을 받게 되었다. 거기에는 “지난 한 세기 동안 두 나라가 복음선포의 동반자로 일해 온 것을 인정하여, 영국성서공회가 로스 역 누가복음서를 대한성서공회에 선물로 기증할 수 있도록, 케임브리지 대학교 도서관에서 그 책을 반출해 달라는 영국성서공회 이사회의 요청을, 케임브리지 대학교 도서관 당국이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지금 막 듣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sup>22)</sup>.

케임브리지 대학교 도서관의 한국어 자료 목록<sup>23)</sup>을 보면 로스 역 누가복음서가 두 권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sup>24)</sup>. 두 권의 로스 역 누가복음서에는 각각 동일하게 ‘604 E 82a’라고 하는 분류번호가 붙어 있고, 로스 역 신약전서에는 “604 E 87a”라고 하는 분류 번호가 붙어 있었다. 그 중 한 권의 누가복음서 뒤 표지에는, 이 책이 한국어로 번역된 첫 번째 누가복음서라는 것과 1882년에 ‘묵덴’에서 출간된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만년필로 적혀 있다<sup>25)</sup>. 다른 한 권의 누가복음서 표지 위에는 한국어 누가복음서를 런던성서공회 총무인 라이트 목사에게 증정한다는 헌사와 로스의 친필 서명과 1882년 3월 24일 우장(牛莊)이라고 하는 헌서(獻書) 일자와 그가 머물던 곳의 지명이 적혀 있다<sup>26)</sup>. 존 로스 목사의 친필 헌사(獻辭)를

22) Neil Crosbie's Fax Message to the Korean Bible Society, for the attention of Ho Yong Kim, 18 December 1997: "I am delighted to inform you that we have just received the agreement of Cambridge University Library to the BFBS board's request for the release of the gospel of Luke, so that we might offer it to the Korean Bible Society as a gift in recognition of our partnership together in gospel for over 100 years."

23) 정확히 30쪽 짜리 The List of the Korean Collection.

24) "1882 (St. Luke's Gospel) (Mukden)/ 1882. 23.5 x 14.5 cm/ -- another copy, presented by J. Ross, Newchang 24 March 82/ -- another copy, presented to NBSS, 1971" 대한성서공회에서는 필자를 보내어 두 권을 확인하였다. 필자는 1995년 7월 14일에 케임브리지 대학교 도서관을 방문하여 영국성서공회가 파견한 사서 알란 젝슨(Alan Jesson) 목사의 안내를 받아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 두 권과 「예수성교전서」 한 권을 확인하였다.

25) 만년필로는 "Corean/ Luke/ 1st Edition"이라고 쓰여 있고, 그 밑에 연필로 "1882 Mukden/ ... Korean Dialect/ by John Ross and John MacIntyre"라고 쓰여 있다. 점선 부분은 지워져서 읽을 수가 없다. Mukden은 심양(瀋陽)의 만주어 이름이다. 책 안에는 명함 크기 만한 카드에 "KOREAN/ St. Luke, 1882/ First edition in Korean./ Translated from the Chinese Version by John Ross of the U. P. Church of Scotland, with the help of Koreans."라는 말이 타자기로 적혀 있다.

26) "Gospel of S. Luke in Corean/ Rev W Wright Secy Bible Socy London/ with

대하는 것은 감동적이었다. 그의 육필은 육성처럼 들려 오는 감동을 주기에 족했다. 대한성서공회에서는 로스의 친필 서명이 적혀 있는 바로 그것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었고, 영국성서공회도 그것을 보내기 위해 마이크로 필름 작업을 하던 중에 책이 너무 파손되어, 덜 파손된 것을 보낸다고 하면서 인쇄본은 존 로스의 서명이 없는 것을 보내고, 서명이 들어 있는 것은 마이크로 필름에 담아서 보내주는 친절을 베풀었다<sup>27)</sup>. 대한성서공회로 보내는 책의 헌정사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적혀 있다. “영국성서공회는 대한성서공회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동반자 관계를 지켜 온 것을 고맙게 여기어 로스 역 누가복음서를 대한성서공회에 선물로 드립니다. 1998년 1월.”<sup>28)</sup>

### 3. 성서 반포(頒布)와 권서(勸書)의 활동

성서를 반포(頒布 **distribution**)한다고 하는 것은 성서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세상에 널리 퍼서 퍼뜨리는 것을 일컫는 것으로서, 성서공회가 해야 하는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이다. 이것은 단순히 성서를 보급하는 것만이 아니라, 독자들로 하여금 성서의 말씀을 올바르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운동으로까지 폭이 확대되는 것이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성서공회의 설립 목적은 다 같다. 성서를 번역하고 출판하고 반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언어로 번역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게 하는 것이다. 성서공회가 체계적으로 자리를 굳힌 곳에서는 이 업무가 분담되어 이루어지고 있지만, 초창기의 성서공회들에서는 번역자가 출판도 하고 반포도 하게 된다. 로스 번역 팀의 경우도 이와 별로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런데, ‘최초’의 번역 작업의 뒤를 잇는 출판과 반포도 역시, 어떤 전례가 없는

compls of JR/ Newchang 24 Mch 82”. 지금도 궁금한 것은 이 두 권의 로스 역 누가복음서와 「예수성교전서」 어디에도, 책 표지에 적힌 분류 표시 외에 소장자의 장서인이 전혀 찍혀 있지 않다는 것이다.

27) 영국 출장을 갔던 대한성서공회의 서원석(徐元錫) 국장이 1998년 1월 31일에 귀국하면서 이것을 가져 왔다. 서국장은 번역자 중 한 사람이었던 서상륜(徐相崙)씨의 후손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서원석 씨는 서상륜 씨의 동생인 서경조(徐景祚)씨의 4세 손이다. 그가 이 귀중본을 우리 나라로 운반하였다는 것은 그의 가문에 또 하나의 뜻 있는 일일 것이다.

28) “Presented to the Korean Bible Society by the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 in Grateful Recognition of our Partnership in the Gospel of Christ. January 1998”

‘최초’의 작업이므로, 성서운동의 역사에 있어서 이러한 단계의 역사를 회고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성서운동에서는, 출간된 성서를 반포하는 이들로서, 일찍부터 권서(勸書 colporteur)라고 하는 이들이 있었다. 달리, 매서인(賣書人)이라고도 불렀다. 기독교에서 각 처로 다니며 기독교의 도리를 전하면서 성서나 각종 기독교 서적을 판매하는 이들을 일컫는 말이다<sup>29)</sup>.

누가복음서가 1882년 3월에 출간된 이후, 식자공(植字工)이었던 김청송 씨가 만주 지역 서간도의 한인촌(Corean Valley)으로, 전도자겸 권서의 기능을 가진 이로 가서, 집안현 이양자(輯安縣裡楊子)를 중심으로 수 천 권의 복음서를 반포하였다<sup>30)</sup>.

인쇄된 복음서를 제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주로 비밀리에 반입한 기록도 있다. 당시, 조선은 외국 종교의 서적 유입을 극히 제한하였으므로, 복음서를 몰래 반입하는 방법을 고안하기도 했었다고 한다. 조선 상인들이 정기적으로 중국 심양으로 가서 관용(官用)으로 쓸 고지(古紙)를 사서 들여오는 일이 있었는데, 인쇄된 복음서를 제본하지 않고, 고지와 함께 포장하여, 세관 검사관의 눈을 피해, 의주 지역으로 성서를 반입할 수 있었다고 한다<sup>31)</sup>. 의주 지역의 성서 반포에는, 이미 로스 역 출간 이전부터도, 백홍준(白鴻俊) 씨와 몇몇 신도들의 한문성경 반입과 기타 기독교서적 반입 활동이 보고되고 있다<sup>32)</sup>. 따라서, 로스 역 누가복음 출간 이후에도 백홍준 씨의 의주 지방 권서 활동은 계속되었으리라고 본다<sup>33)</sup>.

서상륜(徐相崙) 씨의 권서 활동은 특별히 기술할 만하다<sup>34)</sup>. 그는 「예수

29) 권서에 관한 한 독보적인 연구로서는 이만열, “勸書에 관한 연구”, 『東方學志』 제65집(1990.6)이 있다.

30) 이것에 관한 개략적인 진술에 관해서는 이만열·육성득, 『대한성서공회사 I』 91쪽을 참고할 수 있음. 더 상세한 진술에 관해서는 Ross's Letter to Wm. Wright, Oct.11, 1881; John Ross, "The Christian Dawn in Korea", *The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 April, 1890, pp.243-244. 이 글은 “한국기독교의 여명”, 『한국기독교와 역사』 창간호(1991.7), 163-174쪽에 번역되어 있음.

31) 양주삼, 정태인 편찬, 『實記』, 20쪽.

32) John MacIntyre, "Newchang", *The United Presbyterian Missionary Record*, July, 1, 1881, p.271.

33) 이만열·육성득, 『대한성서공회사 I』, 92쪽.

34) 서상륜 씨의 권서 활동을 포함한 그의 개종, 번역 활동에 관해서는, E. Wagner, "Through the Hermit's Gate with Suh Sang Yun", *The Korea Mission Field*, May, 1938, pp. 93-96; 이만열, “한국 기독교 선구자 서상륜 선생”, 『빛과 소금』 (두란노, 1988년 2-3월호); 같은 저자의 “徐相崙의 행적에 관한 몇 가지 문제”, 『韓國基督教史研究』 제19호 (1988년 4-5월), 4-25쪽.

성교 누가복음전서」가 나온 직후인, 1882년 4월경, 세례를 받고, 반 년 동안 심양에서 로스의 성서 사업을 돕다가, 10월 6일에 ‘영국성서공회의 한국 최초의 권서’가 되어 의주로 파송을 받는다. 10월 초에 출발하였으므로 10월 중순경에는 의주로 들어왔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때 복음서 500권과 동일한 양의 소책자(한문으로 된 교리 문서)를 가지고 의주로 들어 온다. 이것이 아마도 기록에 나타난 한글 성서의 첫 전래가 될 것이다<sup>35</sup>).

이성하(李成夏) 씨도 서상륜 씨와 함께 번역 활동과 권서 활동을 한 것으로 전해지지만, 이성하 씨에 관해서는 확인할 자료가 부족하다<sup>36</sup>. 류춘천 씨는 김청송 씨 뒤를 이어 로스의 문광서원의 식자공이 된 사람인데, 이 사람 역시 권서가 되어 1883년 5월에 평양으로 파송된다. 누가복음서 237권과 요한복음서 700권을 가지고 떠났었다고 한다. 로스는 별도로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른 수세자’(아마도 서상륜)에게 보낼 누가복음서 100권과 요한복음서 300권이 담긴 별도의 상자를 함께 가지고 떠났다고 한다<sup>37</sup>).

이 밖에 영국성서공회 북중국 지부의 부 책임자였던 하몬(Harmon)의 만주 한인촌 권서 활동<sup>38</sup>,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일본 지부 총무 톰슨 목사가 파견한 일본인 나가사카(長坂毅)의 부산과 울산에서의 권서 활동<sup>39</sup>, 한문성경을 들고 들어 왔던 중국내지선교회(中國內地宣教會) 소속 다우드웨이트(A. W. Douthwaite)와 청군(淸軍) 병사의 국내 권서 활동<sup>40</sup>,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일본 지부 총무 톰슨(J. A. Thomson) 목사가, 로스 역 누가복음서와 요한복음서를 반포하도록 보낸 일본인 스가노(菅野)의 부산 성서 보급소 설치<sup>41</sup>, 역시, 톰슨이 보낸 세이노(Seino)의 제물포 권서 활동<sup>42</sup> 등

35) Ross's Letter to Wm. Wright, Oct, 9, 1882; (서상륜), “서선싱 상륜의 경력”, 「그리스도신문」 1901년 9월 19일자. 이만열 교수는 이 글을 두고, 원문에는 필자가 밝혀져 있지 않으나, 내용으로 보아 서상륜 자신의 글이라고 판단된다고 한다. 이만열, “徐相崙의 행적에 관한 몇 가지 문제”, 「韓國基督教史研究」 제19호 (1988.4.5), 22쪽.

36) 이만열·옥성득, 「대한성서공회사 1」, 96-97쪽.

37) Ross's Letter to Wm. Wright, June 11, 1883.

38) *The Annual Report of BFBS for 1885*, "Appendix A", p.350; *The Annual Report of BFBS for 1887*, p.272.

39) Thomson's Letter to W. J. Slowan, August 3, 1883, *The Minutes of the Western Committee of NBSS*, October 9, 1883; *The Annual Report of NBSS for 1883*, p.38.

40) *The Minutes of the Western Committee of NBSS*, March 3, 1884; *The Quarterly Record (NBSS)*, July 1884, pp.795-796.

41) A. J. Thomson, "A Visit to Corea", *The Quarterly Record (NBSS)*, June 1885, pp.805-808.

42) *Annual Report of NBSS for 1886*, pp.43-44.

이 1882년부터 1886년까지 있었다<sup>43)</sup>.

#### 4. 번역 과정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역사는 기록으로 보면, 멀리 1832년으로 소급해 올라간다. 중국에 와 있던 선교사 귀츨라프(K. F. A. Guetzlaff, 郭實臘)가 1832년에 영국 동인도회사의 암허스트 호를 타고 광둥을 출발하여 황해도 장산곶을 지나 충청도 홍주만 고대도에 머물면서 우리 나라 사람들에게 전도문서와 한문 성경을 나누어주고, 주기도문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소개하기도 했다고 한다.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중국 지부 총무로 와 있던 알렉산더 윌리엄슨(Alexander Williamson, 韋廉臣)은 한국선교를 희망하는 토머스(R. J. Thomas) 목사를 성서공회 직원 자격으로 1865년 9월에 한국 서해안을 방문하게 하여, 토마스 목사는 한문 성경을 가지고 한국을 방문하였고, 서해안에서 한국 사람들에게 한문 성경을 나누어 주기도 하였다. 토마스 이전이라 하더라도, 중국과 우리 나라가 교류를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한문 성경이 우리 나라로 들어 올 가능성은 있다. 1866년 8월에는 제너럴 서먼 호를 타고 평양까지 가서 한문 성경을 전하였으나 9월 2일 대동강 가에서 입국을 거절당한 채 죽고 만다<sup>44)</sup>.

이상은 우리에게 기독교의 경전을 전해 주려 했던 초기의 역사이다. 한국어 성서번역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실천된 것은 스코틀랜드 연합 장로교회 선교사 존 로스로부터 비롯된다<sup>45)</sup>. 로스 목사는 중국에 온 선교사였

43) 이들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을 상대로 국내외에서 성서를 반포한 것과 권서 활동에 관한 상세한 정리는 이만열·옥성득, 「대한성서공회사 I」, 100-105쪽에서 볼 수 있음. 여기에 인용된 자료들도 「대한성서공회사 I」에서 밝힌 것을 거듭 인용한 것임.

44) 이만열·옥성득, 「대한성서공회사 I」 조직·성장과 수난 (대한성서공회, 1993), 28-29쪽. 한국 교회는 그의 이러한 순교를 기억하고 있다. 1926년 11월 14일에 한국교회는 토머스 목사 순교 60주년과 성서공회설립 30주년과 민휴 선생 총무 봉직 25주년을 함께 기념하였고, 특히 토머스 목사가 죽은 자리에 토머스 기념 교회를 세워, 6년 후인 1932년 9월 14일에 헌당하였으며, 복음전도선 토머스호(Thomas Gospel Boat)를 진수시키기도 하였다고 한다. 같은 책, 403-405쪽.

45) 존 로스 목사에 대한 전기적 고찰은, 金良善, “Ross Version과 韓國 Protestantism”, 圓峯劉鳳營先生古稀紀念史學論叢 「白山學報」 제3호 (1967.11); 김정현, 「羅約翰 (John Ross) 한국의 첫 선교사」 (大邱啓明大學校出版部, 1982); 이덕주, “초기 한글성서 번역에 관한 연구 - 특히 성서 번역자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글성서와 겨레문화」 (기독교문사, 1985), 그의 저서, 「초기한국기독교사연구」 (한국기독교역사연

다. 1872년 8월 23일, 그는 30세의 젊은 나이에 갓 결혼한 아내와 함께 상해에 도착한다. 중국에 와 있으면서도 늘 한국 선교를 꿈꾸어 온 로스는 드디어 1874년 10월에 고려문 여행을 하고<sup>46)</sup> 거기에서 상인인 백(白)씨 - 백홍준의 부친 - 를 만나 한문 「신약전서(新約全書)」를 전했다고 한다. 고려문(高麗門, Corean Gate)은 책문(柵門)으로도 알려져 있다. 만주에 있던 세관이었다. 우리 나라와 청나라 사이의 무역이 이루어지는 통로에 있었다. 책문, 봉황성(鳳凰城), 심양으로 이어지는 길과, 책문, 봉황성, 요양(遼陽), 안산(鞍山), 우장(牛庄, 營口, Newchang)으로 통하는 무역 길이 있었으므로 한국 사람을 만나는데 있어서 책문은 중요한 지점이었다.

1876년 5월 20일에 두 번째로 고려문을 방문하였고<sup>47)</sup>, 그 때 거기에서 이응찬(李應贊)을 만나 한국어와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한다. 1877년부터 로스는, 한 편으로는 이응찬과 함께 성서번역을 시작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한국어 교재 「한국어입문 (Corean Primer)」<sup>48)</sup>를 출간하였다. 이것은 그가 한 해 전에 출간한 「중국어입문(Mandarin Primer)」과 같은 체계로 구성된 것이라고 한다. 1878년에는 로스는 이응찬을 비롯한 몇몇 한국인들과는 심양에서 요한복음서와 마태복음서를, 서상륜과는 우장에서 누가복음서를 번역하기 시작했다<sup>49)</sup>. 1879년부터는 존 매킨타이어, 백홍준 등과 함께 마태복음서, 사도행전, 로마서 등의 번역을 시작했다. 1881년 10월에 로스는 심양에 문광서원이라는 출판사를 세우고, 「예수성교문답」과 「예수성교요령」을 출간하였고, 드디어 1882년이 되자, 3월에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를 출간하였고, 5월에는 「예수성교전서 요한니복음전서」를 출간하였다<sup>50)</sup>.

로스 역 누가복음서의 번역 방법은 로스 역 신약전서의 번역 방법과 같은 것이었다.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고 한문을 해독할 줄 아는 한국인들이 한문 문리역을 대본으로 사용하여 초벌 번역을 하고, 존 로스와 존 맥킨

구소, 1995), 320-422쪽.

46) John Ross, "Visit to the Corean Gate", *The China Recorder and Missionary Journal* 5 (November, December 1875), pp.471-472.

47) John Ross, "To the Corean Gate", *The United Presbyterian Missionary Record (Scotland Church)* (January, 1877), pp.355-357.

48) 이 책의 복사본은 김정현, 「羅約翰 (John Ross) 한국의 첫 선교사」(계명대학교출판부, 1982) 225-320쪽에서 볼 수 있다. 이 책에 관한 소개로서는 이응호, "Ross 목사의 Corean Primer에 대하여", 「명지어문학」11(1979.2)을 볼 수 있음.

49) 서상륜 씨의 번역과 반포 활동에 관해서는, 이만열, "한국 기독교 선구자 서상륜 선생", 「빛과 소금」 1988.2-3.

50) 이만열·옥성득, 「대한성서공회사 I」, 460-469 쪽의 연보(年譜) 참조.



타이어<sup>51)</sup>가 영어 번역<sup>52)</sup>과 그리스어 본문<sup>53)</sup>을 가지고 한국어 초벌 번역을 검토하고, 번역자들과 토의를 거쳐 번역 본문을 수정하는 작업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었다<sup>54)</sup>.

## 5. 번역 대본에 비추어 본 번역 특징

### 5.1. 대본과 번역문 대조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1882)를 번역하던 한국인들이 사용한 번역 대본은 「新約全書 文理譯」(1852)이다. 누가복음서 1장 1-12절의 한문 본문과 한글 본문을 비교해 본다. 아래 한문 본문은 문리역 본문(1852)이고, 한글 본문은 로스 역 본문(1882)이다.

#### 문리역 본문

一蓋有多人，以我中足徵之事，筆之於書，二乃本傳道者自始親見，而

51) 「예수성교전서」를 로스 역이라고 하는 것은 편의상 대표자격인 인물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것이다. 로스보다 4년 먼저 중국 선교사가 된 매킨타이어는 로스와 함께 한국어 성서 번역에 큰 공헌을 한 인물 중 하나이다. 한국인들로서 번역 팀에 가담했던 이들로서는 이응찬, 서상륜처럼 이름이 알려진 이들도 있지만, 전직 관리, 서울 출신 학자들, 임오군란 망명 군인들, 만주의 한인촌 학자들도 있었는데,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 이만열·옥성득, 「대한성서공회사 I」, 56쪽, “로스 역의 번역 출간(1881-1886)” [표 2] 참조.

52) 그 당시 사용할 수 있었던 영어 번역으로는 1611년에 출간된 「영어흙정역(King James Version)」과 1881년에 출간된 「영어 개역 신약전서(The New Testament English Revised Version)」 등이었을 것이다. 「영어 개역 신약」은 1881년에 출간된 것이어서, 번역 초창기에는 사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출판 직전에 마지막 원고 정리 때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한다. *The Annual Reports of the National Bible Society of Scotland, 1881, Corea.*

53) 그리스어 본문도, Westcott-Hort, *The New Testament in the Original Greek*이나 E. Palmer, *The Greek Testament with the Readings Adopted by the Reviewers of the Authorized Version* 등이 1881년에 출간되기 때문에 로스나 매킨타이어가 누가복음서나 요한복음서를 번역하던 초창기에 이 그리스어 본문을 사용하지는 못했을 것이고, 최종 원고 교정 단계에서 사용했을 것이다.

54) 로스의 우리말 성서 번역에 관해서는 로스 자신의 증언을 직접 들을 수 있다. John Ross, “Corean New Testament”, *The China Recorder and Missionary Journal* 14 (November, December, 1883), pp. 491-497.

授同人，三我又參互考證，次第書之，達提阿非羅閣下，四欲爾探知所學之確然也，五當猶太王，希律時，有亞比亞班祭司，名撒加利亞，其妻亞倫之裔，名以利沙伯，六二人在上帝前，義者也，尊主誠命禮儀而行，無間然矣，七但無子，蓋以利沙伯不妊，二人年又邁，八時撒加利亞，依其班列，行祭司事於上帝前，九循祭司例掣籤得，入主殿焚香，十焚香之際，衆民在外祈禱，十一主之使者現，立香臺右，十二撒加利亞見之惶懼，十三天使曰，撒加利亞，勿懼，爾祈禱既聞之矣，爾妻以利沙伯將生子，可名之曰約翰，

### 로스 역 본문

더기열어사람이부슬들어우리가운데일운일을괴술히되처음으로부터  
 친이보고도를던헌년자우리를준비갓티히엿기로니또뜻히여모둔일을자  
 세이근원을좃차치레토써귀인데오비노의존전에앙달히문귀인볼니보인  
 비의실정을알게히미라우디왕헤롯씨를당히여아비아자의반널에제사일  
 음은사카랴요그체는아론의후에일음은이니사빅이니두사람이하느님의  
 압헤셔올운자라주의 계명과네를좃차히히여흠이업스되다못아들이업  
 스문이니사빅이잉티못히고두사람의나이또한늘그미라마즘사카랴그반  
 널을의지히여제사의직분을하느님의 압페히고제사의규례를좃차제  
 비를어더주의 던에들어가분향히니씩여못빅성은맞게셔비더니주의  
 사자사카랴의게보이고향단올운컨에서거늘사카랴보고황망히여무셔위  
 히니사자닐너같으되사카라는무셔위말나너의비넌거시이무들너시너  
 의체이니사빅이장차아들을나아너를주리니일음을요안나라하라

이 두 본문을 마주 대면시켜 비교해 보면, 어순이 같다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두 본문이 번역 원본과 번역본의 관계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 문리역 본문

#### 로스 역 본문

- |   |   |
|---|---|
| <p>1. 蓋有多人<br/>         以我中足徵之事<br/>         筆之於書</p> | <p>더기열어사람이<br/>         우리가운데일운일을<br/>         부슬들어....괴술히되</p> |
|---|---|

문리역 본문	로스 역 본문
2. 乃本傳道者自始親見 而授同人	처음으로부터 친이 보고도를던흐년자 우리를준비갓디흐엿기로
3. 我又參互考證 次第書之 達提阿非羅閣下	니또뜻흐여모든일을자세이근원을쫓차 치레토55)씨 귀인테오비노의존전에양달흐문
4. 欲爾探知所學之確然也	귀인볼니보인비의실정을알게흐미라
5. 當猶太王希律時 有亞比亞班祭司 名撒加利亞 其妻亞倫之裔 名以利沙伯	유디왕헤롯씨를당흐여 아비아자손의반넬에제사 일음은사카랴요 그체는아론의후예 일음은이니사빅이니
6. 二人在上帝前 義者也 尊主誠命禮儀而行 無間然矣	두사람이하느님의압헤서 올운자라 주의게명과네를쫓차헿흐여 흠이엿스되
7. 但無子 蓋以利沙伯不妊 二人年又邁	다못아들이엿스문 이니사빅이잉티못흐고 두사람의나이또한늘그미라
8. 時撒加利亞 依其班列 行祭司事於上帝前	마즘사카라 그반넬을의지흐여 제사의직분을하느님의압페헿흐고
9. 循祭司例掣籤得 入主殿焚香	제사의규례를쫓차제비를어더 주의던에들어가분향흐니
10. 焚香之際 衆民在外祈禱	씨여 못빅성은맞게서비더니
11. 主之使者現 立香臺右	주의사자사카라의게보이고 향단올운컨에서거늘
12. 撒加利亞見之惶懼	사카라보고황망흐여무서워흐니
13. 天使曰 撒加利亞	사자닐너갈으되 사카라는

---

55) ‘로’의 오식.

문리역 본문	로스 역 본문
勿懼	무서워말나
爾祈禱既聞之矣	너의비닌거시이무들너시니
爾妻以利沙伯將生子	너의체이니사빅이장차아들을나아너를주리니
可名之曰約翰	일음을요안나라하라

## 5.2. 번역의 성격

한 번역을 놓고서, 그것이 대본의 문법 형식과 일치하는 형식일치번역(形式一致翻譯)인가, 아니면, 문법의 형식 일치보다는 동등한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동등성번역(內容同等性翻譯)인가 하는 것은, 번역 대본과 번역 본문을 비교해 볼 때, 첨가와 삭제와 변경의 정도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가지고 가늠할 수 있다. 여기에서 첨가라고 하는 것은 번역 대본에는 없는데, 번역하는 과정에서 번역문에 첨가되는 내용을 말한다. 삭제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 있는 내용이 번역 본문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를 일컫는 것이다. 변경이라는 것은 대본과 번역 본문 사이의 대응 관계에 놓인 낱말의 수량적 일치 여부보다는 문법 형식의 바뀌어나 내용 자체의 바뀌고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첨가와 삭제와 변경이 많으면, 많은 만큼 형식일치번역과는 거리가 먼 것이고, 이 세 요소가 적으면 적은 만큼 형식일치번역에 가까운 것이다. 이 세 요소의 많고 적음은, 두 언어의 어법의 차이, 번역자 개인의 신학이나 이념이나 원문에 대한 이해, 번역을 읽은 독자 집단의 신학적 전통이나 이념과 관련되어 있다.

로스 역은, 첨가와 삭제와 변경을 보이는 의미 전달 중심의 번역 경향을 보인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본문 이해를 위한 첨가, 반복되는 잉여의 표현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의 삭제, 우리말 어법을 따른 변경의 예를 보이고 있다. 위에서 이미 인용한 누가복음서 1장 1-13절을 예로 들어 본다.

2절 ‘而授同人’을 ‘우리를준비갓티호엿기로’라고 번역하였다. 문자대로의 뜻은 ‘우리에게 전하여준 것과 같이’이다. ‘호엿기로’는 ‘괴술하다’를 한번 반복한 번역자의 첨가이다.

3절의 ‘我又參互考證’을 ‘너또뜻하여모든일을자세이근원을좃차’라고 번역하였는데, ‘고증(考證)하다’라는 말을 ‘모든일을자세이근원을좃차’라고 확대하여 번역하였다. 3절의 ‘達提阿非羅閣下’는 글자대로 단순히 ‘테오비노 각하게 드린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귀인테오비노의존전에양달하문’이라고 번역하였다. ‘귀인’과 ‘존전’은 대본의 ‘閣下’를 고려한 확대 번역이다. ‘각하’라는 말 한마디로 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 편지를 올린다는 뜻이 전달됨에도 불구하고, ‘각하’라는 표현을 직접 쓰기를 피하고, ‘귀인(貴人)’이라는 말을 쓰고, 또 ‘達(달)’을 ‘우러러 여쭙다’는 뜻을 지닌 ‘양달(仰達)’이라는 말로 뜻을 확대하여 번역하고, 대본에 없는 ‘존전(尊前)’을 첨가하고 있다. ‘존전’이라 함은 ‘임금이나 높은 벼슬 아치의 앞’을 이르는 말이다.

4절 ‘欲爾探知所學之確然也’를 ‘귀인볼니보인비의실정을알게하미라’라고 번역하였다. ‘귀인(貴人) 본래(本來) 배운 바의 실정(實情)을 알게 함이라’는 뜻이다. 글자대로 번역한다면, ‘너로 하여금 배운 바를 확연하게 탐지하게 하고 싶다’는 것이다. 2인칭 주격 대명사 기능을 가지고 있는 ‘爾(이)’를 문자 그대로 번역하지 아니하고 표현을 바꾸어 ‘귀인(貴人)’이라고 한 것은 우리말 어법을 따라 존경의 뜻을 담아 표현한 것이다. ‘볼니’는 번역자의 첨가이다.

9-10절 ‘入主殿焚香 焚香之際’를 다만 ‘주의던에들어가분향하니써여’라고 짧게 번역하였다. 한문 본문에 있는 ‘焚香之際’라는 말을 그대로 다 번역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써여(때에)’라고만 번역하였다. 반복되는 ‘焚香’이라는 말을 한 번만 번역하였다. 번역자가 반복되는 낱말을 삭제한 경우, 혹은 불필요한 반복을 간략하게 표현한 것으로 판단된다.

11절 ‘主之使者現’을 ‘주의사자사카라의게보이고’라고 번역한 것은, 확대 번역이다. 문자대로 번역하면, ‘주의 사자가 나타나’ 혹은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이다. ‘사카라’는 번역자의 첨가이다.

13절 ‘天使曰’을 ‘사자닐너갈으되’라고 번역하였는데, ‘닐러’는 번역자의 첨가이다. ‘撒加利亞’를 ‘사카라는’이라고 하여, 본문의 호격을, 번역문에서 명령형의 주어 형식으로 번역한 것은 우리말의 어법을 살린 것으로서, 주목할 만하다. ‘爾妻以利沙伯將生子’를 ‘너의체이니사빅이장차아들을나아너를주리니’라고 번역하였는데, ‘너를주리니’는 번역자의 첨가이다.

번역 팀을 이끌었던 로스 목사 자신은 번역에 대하여 맹목적인 문자를 따라 그대로 옮기는 축어적 번역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로스의 번역에 대

한 이해는 그의 다음과 같은 말에서도 볼 수 있다. ‘축어역(逐語譯)은 진정한 의미의 번역이라고 볼 수 없다. 언어가 지닌 관용적 표현이 지닌 본래의 뜻을 충분히 파악해야 한다. 맹목적인 직역은 원어의 관용적 의미를 표현하지 못한다. 번역을 하는 동안에 내가 추구한 것은 원어의 관용적 표현이 지닌 진정한 의미를 전달한다는 것이었다. 문자를 그대로 옮기는 축어역은, 관용적 의미를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 의미를 전달하는,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고 난 다음에나 고려할 사항이었다.’<sup>56)</sup> 그의 이러한 번역 이해는 다음과 같은 번역에서 그대로 나타나 있다. 주의 기도(눅 11:2-5)를 예로 들어 본다.

- |          |                     |
|----------|---------------------|
| 2. 我父在天  | 아바니                 |
| 願爾名聖     | 아바니이름으로성을삼게하시며      |
| 爾國臨格     | 나라이님하소서             |
| 爾旨得成在地若天 |                     |
| 3. 所需之糧  | 쓰년비낭식을              |
| 日日賜我     | 날마다주시고              |
| 4. 我免人負  | 우리또한우리에게진자를샤하여주미니이다 |
| 求免我罪     | 우리죄를샤하여주시문          |
| 俾勿我試     | 우리를미혹에인도티말으소서       |
| 拯我出惡     |                     |

2절의 ‘爾名’이나 ‘爾國’ 같은 것이 ‘너의 이름’, ‘너의 나라’로 번역되지 않고, ‘爾名’의 경우는 2인칭 대명사 ‘너’를 ‘아바니’라고 하는 실명사로 바꾸어 ‘아바니이름’이라고 번역하였고, 다음에 이어지는 ‘爾國’의 경우는, 2인칭 소유격을 생략한 채 ‘나라’로만 번역하였다. 이미 앞에 ‘아바니이름’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으므로, ‘아바니나라’라고 번역해야 할 ‘爾國’은 다만 ‘나라’라고 번역하였다. 이러한 것은 우리말 어법에 대한 로스의 이해를 반영한 것이다.

---

56) 로스의 말을 직접 들어 본다. "Verbal translation is not true translation. You must have the full sense of the original in idiomatic language, and mere literal translation can never be idiomatic. My aim has been to represent the real sense in idiomatic language and literal verbal translation had to wait upon these two conditions." John Ross, "Corean New Testament", *The China Recorder and Missionary Journal* 14 (November, December, 1883), pp. 491-497, esp., p. 494.

로스는, 한국 사람들이 높은 대상을 일컬을 때 ‘너’라든가 ‘당신’과 같은 2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 대명사 대신 칭호라든가 그에 맞는 다른 실명사를 써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면에 있어서, 로스 역은 본문 변경에 아주 과감하다. 로스가 번역에서 본문을 변경시키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던 대목이 바로 2인칭 대명사와 관련된 부분이다. 조선인은 말을 할 때에나 글을 쓸 때에나 사람의 사회적 신분을 엄격히 구분한다는 것에 착안하였다. 신분이 같으면, 상대방에게 ‘너’라고 할 수 있지만, 사회적 신분이 다르거나 초면인 경우에는 직접 ‘너’라는 말을 쓰지 못한다는 것에 착안하였다. 그리하여, 주의 기도를 번역할 때도 ‘爾名’을 ‘나의 이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간접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아바니 이름 (아버지의 이름)’으로 고쳐 번역한 것이다<sup>57)</sup>.

3절의 ‘日日賜我’를 번역함에 있어서도 ‘날마다주시고’라고 하여 ‘우리에게(我)’를 생략하였다. 꼭 필요해서 삭제한 것이라기보다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생략한 것 같다. 중요한 것은 대본의 글자 한 자 한 자를 다 따라가며 번역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4절의 ‘人負’는 단순히 ‘빚진 사람’이다. 그런데, 로스 역은 ‘우리에게진 자’ 곧 ‘우리에게 빚을 진 자’라고 하여 ‘우리에게’를 첨가하고 있다.

주의 기도 외에 다른 곳에서도 번역의 성격을 볼 수 있다. 누가복음서 18장 24-25절에 나오는 <sup>24</sup>有財者, 入上帝國, 難矣哉, <sup>25</sup>駝入針孔, 較富人入上帝國’을 번역할 때, ‘針孔(침공)’ 번역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침공(針孔)’은 한문 본문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바늘의 구멍’이다. 아마도 우리말로 번역하는 한국인 번역자들 쪽에서는 ‘침공’이 ‘바늘 대가리에다가 실을 꿰는 구멍’ 곧 ‘바늘귀’였음을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글자 그대로 ‘바늘의 구멍’이라고 번역하면, 그것은 바늘에 실을 꿰는 구멍이 아니고, ‘바늘로 찢어서 뚫린 작은 구멍’, 혹은 ‘바늘이 들어갈 만한 작은 구

57) 로스의 말을 직접 들어 본다. “In one particular, I have taken the liberty of introducing considerable change in my translations. Coreans in both in speech and writing are punctilious in distinguishing the social position of person. Equals in age or rank may employ the direct form of speech, but strangers or persons socially unequal could not use the direct ‘thou’ or ‘you’ of English and Greek. To them such of the second personal pronoun is disrespectful in the extreme. This has influenced all the translations. When God is addressed I have always used the indirect mode of address, e.g. in the Lord’s prayer every ‘Thy’ is translated by ‘Father’s’ the term with which the prayer commences.” John Ross, “Corean New Testament”, *The China Recorder and Missionary Journal* 14 (November, December, 1883), pp. 491-497.

멍’을 뜻하는 것으로서, 바늘귀와는 전혀 다른 뜻이 되어 버리고 만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우리말로는 ‘바늘귀’라고 말한다고, 로스나 매킨타이어에게 말을 했을 가능성은 있다. 이 때, 영어 번역을 보는 로스나 매킨타이어는 한문으로 ‘침공’이라고 번역된 것이 영어 번역에는 ‘바늘의 눈 (the eye of a needle)’이라고 번역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을 것이다. 아마도, 로스나 매킨타이어가 한문 역 ‘침공’의 그리스어 대응어를 보았었다면, 그것이 ‘트레마토스 벨로네스(τρηματος<sup>58</sup>) βελονης)’의 정확한 직역이었음을 확인하였을 것이다. 이 그리스어는 문자 그대로 ‘바늘의 구멍(the hole of a needle)’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로스는, 한국 사람들은 바늘에 실을 꿰기 위해 바늘 대가리에 뚫은 구멍을 ‘바늘의 눈’이라 하지 않고 ‘바늘의 귀’라고 말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한국어의 관용적 표현을 받아들였던 것 같다. 이 구절이 로스 역에서는 ‘지물잇년자하느님의 나라에나아가미얼여운디라약디바늘귀여나가미부자하느님의 나라에나아가년것보담오이러쉽다’라고 번역되어 있다<sup>59</sup>).

### 5.3. 본문비평

로스 역 번역자들이 그들의 대본인 한문 문리역에 대하여 비평적으로 접근한 것을 로스 역 누가복음서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위의 ‘주의 기도’(눅 11:2-5) 번역은 좋은 예를 제시하고 있다.

2절의 ‘我父在天’에서 로스 역은 ‘父’만 ‘아바니’로 번역하고, ‘我’와 ‘在天’은 번역하지 않았다. 비평적으로 편집된 그리스어 본문에 ‘πατηρ(아버지!)’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이다<sup>60</sup>).

58) 그리스어 τρηματος에 관해 Louw & Nida, *Greek-English Lexicon*, volume 1 (United Bible Societies, 1988), 6.216: "τρηματος - 'hole' (used in the so-called 'eye' of a needle). .... The hole in a needle is variously referred to in different languages, for example, 'the nostril of the needle', 'the ear of the needle', 'the mouth of the needle', and even 'the anus of the needle'".

59) 밑 줄은 인용자가 붙인 것이고, 두 곳 비운 곳은 로스 역 본문에 대두(擡頭)가 적용된 곳이다. ‘트레마토스 벨로네스(τρηματος<sup>1</sup>) βελονης)’의 번역에 관해서는 John Ross, "Corean New Testament", *The China Recorder and Missionary Journal* 14 (November, December, 1883), pp. 491-497.

60) Nestle-Aland, *Novum Testamentum Graece*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93) p.27에 따르면, ημων ο εν τοις οθρανοις는 A C D W Θ Ψ 070 f13 33vid M it syc.p.h co 등



2절 한문 대본의 ‘爾旨得成在地若天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이 로스 역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것은 그리스어 γεννηθητω το θελημα σου ως εν οθρανω και επι της γης의 번역이다. 비평적으로 편집된 그리스어 본문에 이 구절이 없다<sup>61</sup>).

4절 ‘拯我出惡 (다만 악에서 구하여주십시오)’가 로스 역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것은 그리스어 αλλα ρυσσαι ημας απο του πονερου의 번역이다. 그러나 이 구절은 비평적으로 편집된 그리스어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는다<sup>62</sup>).

경우에 따라서는 ‘수용 본문(受用本文 Textus Receptus)’을<sup>63</sup> 받아들인 곳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용 본문을 피하여 비평적으로 재구성한 본문을 받아들인 예도 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서 9장 55-56절이 번역 대본인 한문 문리역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후대의 사본에만 나타나고, P75 **κ** B 1. 700 pc aur vg sys; McionT Or 등에는 다만 πατη ρ라고만 되어 있다.

61) Nestle-Aland, *Novum Testamentum Graece*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9327)에 따르면, γεννηθητω το θελημα σου ως εν οθρανω και επι της (-**κ**\* A C D W Δ Θ 070vid. 892 al) γης는 **κ**(\*) A C D W Θ Ψ 070 f13 33vid M it vgs syp.h bo 등 후대의 사본에만 나타나고, P75 B L 1 pc vg syss.c ;McionT Or 등에는 나오지 않는다.

62) Nestle-Aland, *Novum Testamentum Graece*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9327)에 따르면, αλλα ρυσσαι ημας απο του πονερου **κ**1 A C D W Θ Ψ 070 f13 33vid M it vgmss syc.p.h bopt 등 후대의 사본에만 나타나고, P75 **κ**\*.2 B L 1. 700 pc vg syss sa bopt; McionT Or 등에는 나오지 않는다.

63) 수용 본문은 달리, ‘비잔틴 지방 본문(the Byzantine text)’, ‘시리아 본문(the Syrian text)’, ‘코이네 본문(the Koine text)’, ‘교회 본문(the Ecclesiastical text)’, ‘안디옥 본문(the Antiochian text)’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본문 자체의 명확성과 완전성이 그 특징이다. 투박한 본문은 매끄럽게 손질되어 있고, 둘 혹은 그 이상의 이문들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고, 병행본문끼리의 차이점들이 같은 형태로 바뀌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 본문은 시리아의 안디옥 지방에서 생기어서, 콘스탄티노플로 가서 비잔틴제국 전역에 퍼지게 되었다. 알렉산드리아 사본(A: 복음서), 후기 대문자 사본, 수많은 소문자 사본 등이 이 본문 형태에 속한다. 6-7세기부터 구텐베르그의 인쇄술이 발명될 때까지(1450-56) 비잔틴 형태의 본문이 일반적으로 널리 유포된 사본이었다. 구텐베르그의 인쇄술의 발명 이후부터 사본을 손으로 복사하는 것보다 책으로 인쇄해내는 것이 더 빠르고 값싸게 먹히었으므로, 수많은 사본들이 인쇄되었는데, 그리스어 신약성경의 경우에는 사본으로서의 열등한 비잔틴 지방 본문이 신약의 경우에는 거의 19세기초까지 표준 본문으로 계속 인쇄되었었다.

“<sup>55</sup>耶蘇顧而責之曰，爾誠何心，不自知耶，<sup>56</sup>人子至非滅人命，乃救之也，逐往他鄉”

그런데 로스 역에는, 다만, ‘예수 돌아보고칙망흐고이여다른마을노가더라’라고만 되어 있다. 이것은 대본에서 ‘耶蘇顧而責之，逐往他鄉’만을 번역한 것이고, 대본의 밑줄 친 부분 “...曰，爾誠何心，不自知耶，<sup>56</sup>人子至非滅人命，乃救之也(가라사대 너희는 무슨 마음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요 구하러 왔노라)”는 번역에 반영시키지 않았다. 그리스어 신약의 비평적 편집과 본문비평에서는 밑줄 친 부분의 그리스어 본문인 και ειπεν, ουκ οιδατε ουου πνευματος εστε ο υιος του ανθρωπου ουκ ηλθεν ψυχας ανθρωπων απολεσαι αλλα σωσαι는 그리스어 신약의 원문에는 없었고, 후대의 사본에 첨가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그리스어 신약의 비평적 편집에서는 삭제한 것이지만, 수용 본문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고, 문리역에도 이 본문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sup>64</sup>).

23장 17절(αναγκην δε ειχεν απολπειν αυτοις κατα εορτην ενα)이 비평적으로 재구성된 그리스어 본문에는 빠져 있다. 원문의 반영이 아니라는 판단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로스 역 누가복음서의 대본인 한문 문리역에는 17절이 ‘屈節期例必釋(절기를 당하면 반드시 한 사람을 석방하는 예가 있었다)’라고 번역되어 있다<sup>65</sup>). 그러나 로스 역에는 이 본문이 반영되어

64) Nestle-Aland, *Novum Testamentum Graece*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9327)에 따르면, και ειπεν, ουκ οιδατε ουου (ποιου D f1 700 al) πνευματος εστε (+ υμεις K f1 al) ο (+ γαρ K al) υιος του ανθρωπου ουκ ηλθεν ψυχας (-χην Γ pc) ανθρωπων απολεσαι (αποκτειναι Γ 700 al) αλλα σωσαι K Γ Θ f1,13 (579). 700. 2542 pm it vgcl.w.w sy(c.p).h bopt (sed om. ο υιος ... σωσαι D; Epiph). 우리말 「개역」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sup>55</sup>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sup>56</sup>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개역」 난외의 주에는 “어떤 상고 사본에는 <sup>55</sup>절 끝에 다음 말이 있음. 「가라사대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요 구하러 왔노라 하시고,」라는 설명이 있다.

65) 우리말 번역 성서들은 17절을 난 외에 넣는다. 「개역」 본문을 예로 들어본다. 누가복음서 23장 15-18절의 본문은 다음과 같다. “<sup>15</sup>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sup>16</sup>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17절 없음) <sup>18</sup>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눅 23:15-18). 여기 17절의 내용이 본문 안에 없다. 본문 안에는 다만, “17절 없음”이라는 표시만 있다. 대신, 난 외에, “어떤 사본에는, 17절 「명절을 당하면 반드시 한 사람을 놓아 주더라」가 있음”이라는 설명이 있다.

있지 아니하다<sup>66</sup>).

“<sup>15</sup>헤롯이또한그리하여도루보니여스니데죽을죄여합당티안은디라<sup>1</sup>  
<sup>6</sup>고로니이제체티하여노우리라하니<sup>18</sup>못사람이일제이불너갈오되이사  
 람을비리고바라바를노와우리를주소서하니”<sup>67</sup>)

위의 예는, 로스 역이 한문 문리역을 대본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본 고증에 의심이 되는 부분은 그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들이다.

## 5.4. 특수 용어의 번역

### 5.4.1. ‘하느님’<sup>68</sup>)

지고신(至高神)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엘로힘(אלהים)’과 그리스어 ‘테오스(θεός)’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하는 것은 어느 말 번역에서든지 늘 문제가 된다. 성서가 우리말로 번역되기 이전, 중국 천주교에서는 16세기 부터 마테오 리치(Mateo Ricci 利瑪?)의 ‘천주(天主)’를 채택하였는데, 중국 개신교에서는 19세기에 모리슨(Robert Morrison, 1782-1834)이 「신약(新約)」(1814) 번역에서 하나님을 “신(神)”으로 번역하기 시작하였는데, 「대표자역본(代表者譯本, The Delegates’ Version: 文理本)」이 나올 때(新約

66) Nestle-Aland, *Novum Testamentum Graece*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9327)에 따르면, [17] αναγκην δε ειχεν απολυειν αυτοις κατα εορτην ενα는 **Ν** (D sys.c add. p. 19) W (Θ ψ) f1.13 (892mg) M lat syp.h (bopt) 등에만 나오고, P75 A B K L T 070. 892txt. 1241 pc a vgms sa bopt 등에는 나오지 아니한다.

67) 인용 본문의 아라비아 숫자 절 표시는 인용자가 붙인 것이다. 로스 역 본문에는 절 표시가 없다.

68) 이것에 관해서는 이미 민영진, “펜위크가 改正한 「요한복음전」(1891)의 性格”, 「술내閱庚培教授華甲紀念 韓國教會史論叢」 (閱庚培教授華甲紀念論文集刊行委員會, 1994), 571-590 쪽에서 다루었음. 특히, ‘하느님’ ‘하느님’ ‘하나님’ ‘신(神)’ ‘천주(天主)’, ‘상제(上帝)’ 등과 관련된 번역상의 논쟁에 관해서는, 옥 성득, “초기 한글성경 번역에 나타난 주요 논쟁 연구 (1877-1939)”, 장로회신학대학대학원(1993년 2월) 석사 논문, 22-42쪽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임. 곽 노순, “한국교회와 하나님 칭호”(『기독교사상』 1971, 2-3월 호)는 ‘하나님’과 ‘하느님’ 논쟁을 다룬 것이다. 박찬옥, “한국어 신명 고-정서법에서 본 ‘하느님’”, 『한글성서와 겨레문화』, 기독교문사, 1985. 전택부, “하나님 및 천주라는 말에 관한 역사 소고 - 18세기와 19세기를 중심으로”, 『한글성서와 겨레문화』, 기독교문사, 1985.

1852, 舊約 1854), “상제(上帝)”라고 써야할지 “신(神)”이라고 써야할지, 어느 하나로 통일을 하지 못하고, 결국 따로따로 원하는 대로 쓰자고 하여, 영국성서공회 쪽에서는 소위 “상제 판(上帝版, Shangti edition)” 성경을 출판하였고, 미국성서공회 쪽에서는 소위 “신 판(神版, Shen edition)” 성경을 따로 따로 출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개신교보다 한 세기 먼저 들어 온 가톨릭은 처음부터 중국 천주교의 전통을 따라 ‘천주’를 썼다.

그런데, 최초의 우리말 성서인 로스 역 누가 복음서 1882년 초판은 번역 대본의 ‘상제’를 따라 그대로 ‘상제’라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고유어를 택하여 ‘하느님’이라고 번역하였다. 1883년의 개정판에서는 표기가 ‘하느님’에서 ‘하나님’으로 바뀐다. 오늘날은 ‘하나님’과 ‘하느님’으로 정착되었지만, 이것이 정착되기까지 여러 가지 논란과 어려움이 많았다. 1884년에 간행된 이수정(李樹廷)의 「新約聖書」(1884)<sup>69)</sup>과 「신약마가전 복음서언해」(1885)는 ‘신’을 채택하였고, 언더우드(Underwood)의 「마가의전훈복음서언해」(1887)는 ‘상제(上帝)’를 썼고, 「신약전서」(1906)에서부터는 ‘하느님’을 쓰기도 하였다. 이제, 남한의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을, 남한의 카톨릭과 북한의 조선 기독교도연맹의 「성서」에서는 ‘하느님’을 쓴다. 로스가 지고신을 부르는 말을 ‘하느님’ ‘하나님’으로 정한 것은, 한편으로는 그의 선견지명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교회의 신 칭호를 결정해 준 최초의 결정적 포석이었다.

#### 5.4.2. ‘뱍뵆네’<sup>70)</sup>

그리스어 동사 ‘뱍뵆조(βαπτίζω 세례주다)’, 명사 ‘뱍뵆스마(βαπτισμα 세례)’, ‘뱍뵆스모스(βαπτισμος 세례)’, ‘뱍뵆스테스(βαπτιστης 세례자)’ 등의 그리스어 낱말을 한국어로 번역하지 않고, 그리스어를 음역하여, ‘뱍뵆네(--禮)’라고 한 것은, 적절한 우리말 대응어를 찾지 못하여 그렇게 음역한 것이 아니라, 중국 개신교에서 성서를 번역하면서 생겼던 ‘세례’와 ‘침례’의 논쟁이 한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염려에서 그리스어를 음역

69) 「新約聖書馬太傳」, 「新約聖書馬可傳」, 「新約聖書路可傳」, 「新約聖書約翰傳」, 「新約聖書使徒行傳」, 모두 1884년에 미국성서공회의 발행으로 일본에서 번역 출간되었다.

70) 이것에 관해서는 이미 민영진, “뱍뵆크가 改正한 「요한복음전」(1891)의 性格”, 「술내閔庚培教授華甲紀念 韓國教會史論叢」 (閔庚培教授華甲紀念論文集刊行委員會, 1994), 571-590 쪽에서 다루었음.

하는 방안을 취한 것이다<sup>71</sup>). 한문 대본에는 ‘洗禮(세례)’로 되어 있었다(눅 3:3).

#### 5.4.3. ‘사밧일(...日)’

‘밧밧네’처럼 이것도 음역이다. 한문 대본에는 ‘安息日(안식일)’이다(눅 4:16). 이것을 그대로 번역하여 우리말로 ‘안식일’이라고 하지 않고, ‘안식’으로 번역된 히브리어어의 그리스어 음역 ‘사밧톤(σαββατον)’을 그대로 우리말로 음역하였다. 아마도 단순히 안식하는 날이 아니라, 유대교에서 예배와 안식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특별한 날임을 드러내려 한 것 같기도 하다. 인도유럽어족 계통에서도 이 말을 번역하지 아니하고 음역을 하는 것이 로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sup>72</sup>).

#### 5.4.4. ‘넘년절(...節)’

한문 대본에는 ‘逾越節(유월절)’이라고 되어 있다(눅 22:1). 그리스어 본문에는 히브리어 ‘팻삭(Πασχα)’을 음역한 ‘파스카(πασχα)’가 나와 있다. 여기에서는 음역을 피하고 낱말의 문자적 의미를 우리의 고유어로 해석하고 있다. 1900년 「신약전서」에서는 ‘유월절’로 바뀐다.

#### 5.4.5. ‘누룩금흔년절(...節)’

한문 대본에는 ‘除酵節(제효절)’이다. 뜻을 풀이하여 ‘누룩금흔년절’이라고 하였다. 1900년 「신약전서」에서도 아직 ‘누룩 업는 썩 먹는 절기’라고 번역하였는데, 그 후 개정 과정에서 ‘무교절(無酵節)’ ‘무교병절(無酵餅節)’로 번역된다.

71) ‘밧밧스마’를 실제로 베푸에 있어서, 역대 교회는 물을 뿌리는 방식과 물에 잠기는 방식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실시해 오고 있다. 한문권(漢文圈) 안에서는 물을 뿌리는 방식은 ‘세례(洗禮 baptism by effusion)’라고 하고, 물에 잠기는 방식은 ‘침례(浸禮 baptism by immersion)’라고 한다. 중국 개신교에서 대표위원회역을 진행할 때, 미국 침례교선교사 대표인 고다드(J. Goddard, 高德)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거기에서 탈퇴했고, 후에 마사만(Joshua Marshman, 馬士曼) 역본을 수정하여 세례를 침례로 고치고 「高德譯本」이라고 하여 따로 내기에 이른다. 中文聖經新譯會 編, 「中文聖經翻譯小史」, p.20.

72) 라틴어 Sabbata, 영어 Sabbath, 독일어 Sabbat, 프랑스어 Sabbat.

## 6. 계속되는 개정작업

### 6.1. 로스 번역 팀 자체의 개정

다음 인용문은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문광서원, 1882) 10장 30-35절의 본문이다. 절 표시 없는 그대로 인용해 본 것이다.

예수갈으되한사람이예루사렘으로붓터여리코에니려오다가도적을만  
니여그옷슬앗고또혹게터거의죽게하여비리고갓넌데마즘한제사이길노  
니려가다가보고마주디니가고또니위사람이그곳에닐으러나아가보고또  
한마주디니가되사미라한사람이헿헿여그짜에닐으러보고어엽비네겨압  
폐갓가이하여기림과술노써그상한곳에부위싸미고자괴증싱으로써티우  
고인도하여직덤에닐으러돌아보고이튼날헿헿적에돈두돈을취하여직덤  
주인을주위갈으되이사람을돌아보되부비가만약더만으면니돌아올써여  
갑푸리라하여시니

위 인용문을 현대의 구두점을 사용하고 띄어읽기를 적용하고, 절 표시를 하여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sup>30</sup>예수 갈으되 “한 사람이 예루사렘으로붓터 여리코에 니려오다가  
도적을 만나여 그 옷슬 앓고 또 혹게터 거의 죽게 하여 비리고 갓  
넌데 <sup>31</sup>마즘 한 제사 이 길노 니려가다가 보고 마주 디니가고 <sup>32</sup>또  
니위 사람이 그 곳에 닐으러 나아가 보고 또한 마주 디니가되 <sup>33</sup>사  
미라 한 사람이 헿헿여 그 짜에 닐으러 보고 어엽비네겨 <sup>34</sup>압폐 갓  
가이 하여 기림과 술노써 그 상한 곳에 부위 싸미고 자괴 증싱으로  
써 티우고 인도하여 직덤에 닐으러 돌아보고 <sup>35</sup>이튼날 헿헿 적에  
돈 두돈을 취하여 직덤 주인을 주위 갈으되 ‘이 사람을 돌아보되  
부비가 만약 더 만으면 니 돌아올 써여 갑푸리라’ 하여시니”

위 본문이, 1년 후에 어떻게 개정되어 나왔는지를 「예수성교성서 누가복음/테자헿적」(문광서원, 1883)에 들어 있는 「누가복음」에서 보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있다.

예수더답호여갈오더혹이에루살림으로부터에리코에니려오다가강도를만니여그옷슬앗고또혹게쳐거의죽게호여버리고갓난디마즘한제사이길노니려가다가보고마주지니가고또리위사람이그곳에닐으러나아가보고또한마주디니가되사마라사람이헿호여그쌍에닐으러보고어엿비네겨압페갓가이호여기름과술노써상한곳에부위싸미고자괴증싱으로써티우고인도호여직점에닐으러돌아보고이튼날헿홀적에은두돈을취호여직점주인을주위갈오디이사람을돌아볼데부비가만약더만으면니돌아올써여갑푸리라호여스니

위 본문이, 1887년 완역 신약전서인 「예수성교전서」 안에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있다.

예수더답호여갈오샤디30혹이에루살림으로부터에리코에니려오다가강도를만니여그옷슬앗고또혹게쳐거의죽게호여버리고갓는디31마참한제사이길노니려가다가보고마주지니가고32또리위사람이그곳에닐으러나아가보고또한마주지니가되33사마라사람이헿호여그쌍에닐으러보고어엿비네겨압페갓가히하여34기름과술노써상한곳에부위싸미고자괴증싱으로써티우고인도호여직점에닐으러돌아보고35이튼날은두돈을취호여직점주인을주위갈오디이사람을돌아볼데부비가만약더만으면니돌아올써에갑푸리라호여스니

누가복음서 10장 30-35절에서, 로스 역 누가복음서의 첫 번역 본문(1882)과 그 후에 두 번 개정된 본문(1883, 1887)의 달라진 내용을 보기 위하여 그 바뀐 곳들을 대조해 본다. 제일 왼쪽 난은 1882년 첫 번역 본문이고, 가운데 난은 1883년 판에 반영된 개정 본문 내용이고, 제일 오른쪽 난은 1887년 판에 반영된 개정 본문 내용이다. 아무런 지적이 없는 것은 바뀌지 않은 것이다.

1882	1883	1887
예수 갈으되	더답호여갈오디	더답호여갈오샤디

1882	1883	1887
한사람이	혹이	
예루사렘	예루살임	
으로부터	으로부터	
여리코에	여리코에	
내려오다가		
도적을	강도를	
만니여		
그옷을		
앗고		
또혹게터	또혹게쳐	
거의		
죽게 하여		
버리고	버리고	
갓넌데	갓난디	갓는디
마침		마침
한제사	한제사	
이길노		
내려가다가		
보고		
마주		
너가고		지너가고
또니위사람이	또리위	
사람이		사름이
그곳에		
날으러		
나아가		
보고		
또한		또흔
마주		
디너가되		지너가되
사미랴	사마랴	
한사람이	사람이	사름이



1882	1883	1887
헝헝여		
그짜에	그쌍에	그짜에
널으러		
보고		
어엽비네겨		
압폐		
갓가이헝여		갓가히하여
기림과	기름과	
술노써		
그상한	상한	상흔
곳에		
부위		
싸미고		
자긔		
증싱으르써		
티우고		
인도헝여		
긔덤에	긔점에	
널으러		
돌아보고		
이튼날		
헝헝적에		(헝헝적에) 삭제
돈	은	
두돈을		두돈을
취헝여		
긔덤	긔점	
쥬인을		쥬인을
주위		
갈으되	갈오디	
이사람을		이사람을
돌아보되	돌아볼데	
부비가		

<p>1882</p> <p>만약 더만으면 니 돌아올 씨여 갑푸리라 히려시니</p>	<p>1883</p>       <p>히려스니</p>	<p>1887</p> <p>(생략)</p>       <p>씨에                히려스니</p>
---	--	--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번역이 달라진 곳은 거의 없다. 철자법, 음역 등이 달라진 것이 주종을 이루고, 간혹 같은 의미의 대응어 교체와 존대법을 확대하여 적용한 예가 보이기도 한다. 개정 단계에서 어순이 바뀐 예는 찾아보기 힘들다.

## 6.2. 아펜젤러가 개정한 로스 역

로스 역 누가복음서가 그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누가복음서 번역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도 로스 역의 영향을 알기 위해서 필요하다<sup>73)</sup>. 로스 역 누가복음서인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가 후대에 나온 개정이나 새로운 번역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로스 역 「예수성교전서」(1887)에 들어 있는 누가복음서 번역 본문을 1890년에 출간된 아펜젤러의 누가복음서 번역 본문과 비교해 보

73) 이미 민영진, “펜위크가 改正한 「요한복음전」(1891)의 性格”, 「솔내閔庚培教授華甲紀念 韓國教會史論叢」(閔庚培教授華甲紀念論文集刊行委員會, 1994), 571-590 쪽에서, 로스 역 「예수성교 요한복음전서」(1882)가, 그 이후의 요한복음서 번역에 끼친 결정적인 영향에 관해서는 고찰한 바 있다. 거기에서 필자가 밝히고자한 것은 1891년에 나온 펜위크와 서경조의 「요한복음전」이 (1) 한문 문리역에서 새로 번역된 것이 아니라, 로스 역 「예수성교전서」에 들어 있는 「요한니」(1887)의 개정본이라는 점, (2) 따라서, 펜위크와 서경조는 요한복음서에 관한한, 번역자들이 아니라, 개정자들이었다는 점, (3) 신약 각권의 경우가 사정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요한복음의 경우는 이미 그 문체나 문장 구조에 있어서 로스 역이 「구역」과 「개역」에 들어 있는 요한복음서의 골격을 이루었다는 점, (4) 따라서, 「구역」이나 「개역」 신약 번역에 미친 로스 역의 공헌과 중요성이 크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1891년의 「요한복음전」이 새로운 번역이라고 여겨져 왔으며, 펜위크와 서경조는 개정자가 아닌 번역자로 알려져 왔고, 로스 역과 「구역」 신약전서 사이의 긴밀한 연관성이 과소 평가되어 왔고, 로스 역은 다만 우리말로 번역된 최초의 국역 신약이었다는 점만이 강조되어 왔을 뿐이다.

면, 두 번역 본문의 문장의 구조가 동일하고, 대응 낱말만 부분적으로 교정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아펜젤러의 번역을 독창적인 번역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을 곧 알 수 있다<sup>74</sup>). 누가복음서 10장 30-35절을 비교해 본다.

#### 로스 역 (1887)

예수디답호여갈오샤디30혹이예루살임으로부터에리코에니려오다가 강도를만니여그옷슬앗고또혹게쳐거의죽게호여버리고갓는디31마참한 제사이길노니려가다가보고마주지니가고32또리위사람이그곳에닐으러 나아가보고또호니려가되33사마라사람이헿호여그짜에닐으러보고 어엿비네겨압폐갓가히하여34기름과술노써상호곳에부위싸미고자긔증 성으로써티우고인도호여직점에닐으러돌아보고35이튼날은두돈을취호 여직점주인을주워갈오디이사롬을돌아볼데부비가만약더만으면니돌아 올찌에갓푸리라호여스니

#### 아펜젤러 개정 (1890)

예수 - 디답호여갈오샤디혹이예루살임으로부터에리코에니려오다가 강도를맞나그옷슬 빼앗기고또쳐서거의죽게호여버리고갓는디31못 춤호제스 - 길노니려가다가보고마조지나가고32또리위사람이그곳에 니르러나아가보고또호니려가되33사마라사람이헿호여그짜에니르 러보고어엿비넥여압희갓가이호여34기름과술로써상호곳에부위싸미고 즈긔증성으로써티우고인도호여직덤에니르러도라보고35잇튼날은두돈 을취호여직덤주인을주며갈오디이사롬을도라볼새부비가만약더만으면 내돌아올찌에갓호리라호여스니

이 두 번역을 마주 보게 하여 비교해 보면, 두 번역의 긴밀한 관련을 더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다. 왼쪽 것은 「예수성교전서」(1887)에 들어 있는

74) 우리말 번역 성서의 서지 목록에 기재된 “아펜젤러 번역, 「누가복음전」(대영성서공회, 미이미교회인쇄소, 1890)”은 “아펜젤러 개정, 「누가복음전」(대영성서공회, 미이미교회인쇄소, 1890)”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누가복음전」(1890)이 아펜젤러의 개정이었다는 점을 역사적 자료를 근거로 하여 밝힌 상세한 진술은 이 만열 편, 「아펜젤러」(연세대학교출판부, 1985), 338쪽, 이만열·옥성득, 「대한성서공회사 1」, 223-226 쪽에서 볼 수 있다.

로스 역 누가복음서 번역문이고, 오른쪽 것은 아펜젤러의 「누가복음전」(1890) 본문이다. 오른쪽에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은 번역 본문이 동일한 경우이다.

	로스 역(1887)	아펜젤러 개정(1890)
	예수	
	더답혀여	
	갈오샤디	골아샤디
30.	혹이	
	에루살임으로부터	에루살임으로부터
	에리코에	
	니려오다가	
	강도를	강도를
	만녀여	맛나
	그옷슬	그옷슬
	앗고	쌌앗기고
	또혹게쳐	또쳐서
	거의	
	죽게 하여	
	버리고	버리고
	갓는디	
31.	마참	못춤
	한제사	흔제스
	이길노	길노
	니려가다가	느려가다가
	보고	
	마주	마조
	지니가고	지나가고
32.	또리위사름이	
	그곳에	
	닐으러	니르러
	나아가	
	보고	

	로스 역(1887)	아펜젤러 개정(1890)
	또흔	
	마주	마조
	지니가	지나가되
33.	사마랴	
	사툼이	
	헝헝여	
	그짜에	
	닐으러	니르러
	보고	
	어엽비녀겨	어엽비넥여
	압폐	압희
	갓가히헝여	갓가이헝여
34.	기름과	기름과
	술노씨	술노씨
	상흔	
	곳에	
	부위	
	싸미고	
	자괴	
	증상으로씨	
	티우고	
	인도헝여	
	직점에	직덤에
	닐으러	니르러
	돌아보고	
35.	이튼날	잇튼날
	은	
	두돈을	
	취헝여	취헝여
	직점	직덤
	쥬인을	쥬인을
	주위	주며

로스 역(1887)	아펜젤러 개정(1890)
갈오디	골으디
이사롬을	이사롬을
돌아볼데	돌아볼씨
부비가	
만약	
더만으면	
너	내
돌아올씨에	
갑푸리라	
헉여스니	헉엇스니

두 번역 본문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나열해 볼 수 있다.

#### 6.2.1. 철자법과 관련된 것

- “갈오샤디”를 “골아샤디”로
- “강도를”을 “강도롤”로
- “그옷슬”을 “그웃슬”로
- “버리고”를 “브리고”로
- “마참한제사”를 “뭇츨흔제스”로
- “지너가고”를 “지나가고”로
- “마주”를 “마조”로
- “닐으러”를 “니르러”로
- “으로부터”를 “으로부터”로
- “어엿비녀겨”를 “어엿비녀여”로
- “압페”를 “압회”로
- “갓가히”를 “갓가이”로
- “기름”을 “기롬”으로
- “술”을 “술”로
- “취헉여”를 “취헉여”로
- “깃점”을 “깃덤”으로
- “쥬인을”을 “쥬인을”로

“갈오더”를 “굴으더”로  
“너”를 “내”로  
“흐여스니”를 “흐엿스니”로

### 6.2.2. 대응어 교체

“앗고”를 “썰앗기고”  
“쏘혹게쳐”를 “쏘쳐셔”

위에서 보듯이, 주로 개정된 것은 철자법과 관련된 것들이다. 대응어 교체도 극히 제한되어 있다. 두 번역 본문의 어순이 동일한 것은, 아펜젤러 역이 로스 역의 개정이기 때문이다. 개정이라고 하여 반드시 어순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어순이 달라질 수도 있다. 다만, 기존 번역을 참고하거나 의존하지 아니하는 독립적인 번역인 경우에는 어순이 같을 수 없다는 것이다.

### 6.3. 아펜젤러의 누가복음(1890)<sup>75)</sup>과 언더우드의 누가복음(1895)<sup>76)</sup> 비교

#### 아펜젤러 개정(1890)

예수 - 디답흐여굴으샤디혹이예루살임으로브터예리코에느러오다  
가강도롤맞나그옷슬 썰앗기고쏘쳐셔거의죽게흐여브리고갓는디<sup>31)</sup>뭇  
춤흔계스 - 길노느러가다가보고마조지나가고<sup>32)</sup>쏘리위사툼이그곳에니  
르러나아가보고쏘흔마조지나가되<sup>33)</sup>사마랴사툼이헝흐여그짜에니르러  
보고어엿비녁여압희갓가이흐여<sup>34)</sup>기툼과술로써샹흔곳에부위싸미고즈  
기즘성으로써티우고인도흐여직덤에니르러도라보고<sup>35)</sup>잇튼날은두돈을  
취흐여직덤쥬인을주며굴으디이사툼을도라볼째부비가만약더만으면내  
돌아올째에갑흐리라흐엿스니

75) 성서번역자회 아펜젤러의 개정 누가복음서, 『누가복음전』 (대영성서공회, 미이교회인쇄소, 1890).

76) 성서번역자회 언더우드의 번역, 『누가복음』 (영국, 미국,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1895).

언더우드의 새 번역(1895)

30 예수- 더답 하야 굴으샤 더 혼사름이 예루살뱀을부터 예릭에 니르러가  
 다가도적을 맞나도적이 그 옷솔 벗기고 또 상 하야 거의 죽게 하엿거늘 브리고  
 갓는지라 31 못춤 혼제스장이 이길노느려가다가 보고길 다른편으로 지나가  
 고 32 또이위사름이 그곳에 니르러 압호로 나아가 보고 또 혼 못춤 지나가 디 33  
 오직 사마리아사름은 흥 하야 거의 니르러 보고 민망이 녀여 34 압홀갓가이 하  
 야기 톱과 솔노써 그 상 혼 디를 바르고 싸미여 즈괴튼 거스로 티우고 잇그려쥬  
 막에 니르러 구원 호고 35 잇 혼 날 흥 홀적에 돈 두돈 울춰 호여 쥬막쥬인을 주어  
 굴으 디이사름을 도라 보더 부비가 더만 호면나- 도라올쎄에 네게 갓호리라  
 하엿시니

위에서 한 것과 같이 이 두 번역 본문을 서로 마주 보게 하여 이 두 번  
 역이 얼마나 같고 얼마나 다른지를 보도록 하자. 왼쪽의 것은 아펜젤러가  
 개정한 로스 역 누가복음서 10장 30-35절이고, 오른쪽의 것은 언더우드가  
 새로 번역했다고 하는 누가복음서 10장 30-35절이다. 바뀌지 않은 것은 표  
 시하지 않았다.

아펜젤러 개정(1890)

언더우드의 새 번역(1895)

예수 -  
 더답 하야  
 굴으샤 디  
 혼이  
 예루살뱀  
 으로부터  
 예리코에  
 느려오다가  
 강도를  
 맞나  
 도적이 (첨가)  
 그옷솔  
 찢앗기고

더답하야  
 혼사름이  
 예루살뱀  
 예리고에  
 니르러가다가  
 도적을  
 벗기고



아펜젤러 개정(1890)

또  
 처서  
 거의  
 죽게 하여  
 버리고  
 갓는디  
 못춤  
 혼  
 제스 -  
 길노  
 느려가다가  
 보고  
 마조  
 지나가고  
 또  
 리위사람이  
 그곳에  
 니르러  
 나아가  
 보고  
 또 혼  
 마조  
 지나가되  
 사마랴사람이  
 흥하여  
 그짜에  
 니르러  
 보고  
 어엿비넥여  
 압회  
 갓가이하여  
 기쁨과

언더우드 의 새 번역(1895)

상하여  
 죽게 하엿거늘  
 갓는지라  
 제스장이  
 이길노 (첨가)  
 길다른편으로  
 이위사람이  
 압흐로나아가 (첨가)  
 못춤  
 오직사마리아사람은 (첨가)  
 흥하여  
 거기  
 민망이넥여  
 압흐로  
 갓가이하여

아펜젤러 개정(1890)

언더우드와 새 번역(1895)

술로씨

술노씨

상흔곳에

그상흔디롤 (첨가)

부위

바르고

짜미고

짜미여

즈괴

튼거스로

즘싱으로씨

티우고

잇그리

인도흔여

직덤에

쥬막에

니르러

구원호고

도라보고

잇튼날잇흔날

헝헝적에 (첨가)

은

돈

두돈을

두돈을

츄흔여

직덤

쥬막

쥬인을

주며

주어

굴으디

이사롬을

도라볼째

도라보디

부비가

만약

(삭제)

더만으면

내

나 -

돌아올째에

도라올째에

네게 (첨가)

갑흐리라

흐엿스니

흐엿시니

달라진 내용을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땅

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순이 동일하다고 하는 것은, 언더우드  
의 본문이 독립적인 번역이 아니라 로스의 기존 번역을 근거로 하여 그것을  
개정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 6.3.1. 철자법과 관련된 것

“디답혀여”를 “디답하야”로  
“헝혀여”를 “헝햐야”  
“갓가이혀여”를 “갓가이햐야”로  
“햐엿스니”를 “햐엿시니”로  
“술로씨”를 “술노씨”로  
“잇튼날”을 “잇흔날”로  
“돌아올째에”를 “도라올째에”로  
“두돈을”을 “두돈을”로  
“내”를 “나”로

### 6.3.2. 음역과 관련된 것

“예루살림”을 “예루살렘”으로  
“예리코”를 “예리고”로  
“리위사롬”을 “이위사롬”으로  
“사마랴”를 “사마리아”로

### 6.3.3. 대응어 교체와 관련된 것

“혹이”를 “흔사롬이”로<sup>77)</sup>  
“강도”를 “도적”으로  
“처셔”를 “상햐야”로  
“제스”를 “제스장”으로  
“그짜에”를 “거괴”로  
“어엿비녀여”를 “민망이녀여”로

---

77) 본래 로스 역 1882년 판에는 ‘혹이’가 아니라 ‘흔사롬이’였다. 이것이 1883년 판  
에서 ‘혹이’로 개정되었는데, 언더우드역 와서 다시 ‘흔사롬이’로 된 것이다. 로스 역  
의 영향이 깊다는 것을 보이는 또 하나의 예이다.

“상흔곳”을 “상흔디”로  
 “부위”를 “바르고”로  
 “증성으로써”를 “튼거스로”로  
 “인도하여”를 “잇그러”로  
 “각덤”을 “쥬막”으로  
 “도라보고”를 “구원하고”로  
 “은”을 “돈”으로

#### 6.3.4. 번역을 고친 것과 관련된 것

“느려오다가”를 “니르러가다가”로  
 “췌앗기고”를 “벗기고”  
 “마조지나가고”를 “길다른편으로지나가고”로  
 “도라볼째”를 “도라보디”로

#### 6.3.5. 첨가와 관련된 것

“강도롤맛나그웃술”을 “도적을맛나도적이그웃술”로  
 “길노느려가다가”를 “이길노느려가다가”로  
 “나아가”를 “압흐로나아가”로  
 “사마라사툼이”를 “오직사마리아사람은”으로  
 “상흔곳에”를 “그상흔디를”로  
 “잇튼날”을 “잇흔날헝홀적에”<sup>78)</sup>  
 “돌아올째에갑흐리라”를 “도라올째에네게갑흐리라”로

#### 6.3.6. 삭제와 관련된 것

‘부비가만약더만으면’을 ‘부비가더만으면’으로

---

78) 35절 로스 역의 ‘잇튼날’이 언더우드 역에서는 ‘잇흔날헝홀적에’로 되어 있는데, ‘헝홀적에’는 그리스어 원문의 반영이다. 문리역에도 ‘明日將行’이라하여 ‘이튼날 떠날 때에’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로스 역 1882년 판과 1883년 판에는 ‘이튼날헝홀적에’라는 말이 있었다. 1887년 판에서 이 말이 우연히 빠졌고, 아펜젤라가 1887년 판을 개정할 때 이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두었던 것이 언더우드에게 와서 다시 회복된 것이다.

위에서 보듯이, 언더우드와 로스의 번역이 새 번역이라고는 하나, 바뀐 것은 주로 철자법과 관련된 것, 음역과 관련된 것, 대응어 교체와 관련된 것, 첨가나 삭제와 관련된 것들이다. 번역을 고친 것이 네 경우가 나온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아펜젤러의 본문과 언더우드의 본문의 어순이 같다는 것은 이 두 번역문의 관계가 대단히 밀착된 의존 관계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것은 새로 번역한 것이라기보다는 ‘로스 역을 앞에 놓고’ 거기에 첨가와 삭제와 변경을 가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언더우드의 새로운 누가복음서 번역도 결국 기존 로스 역의 교정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로스 번역이 얼마나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는지를 알 수 있다. 언더우드 번역에서 달라진 것의 대다수는 어미변화, 철자법의 변화, 대응 낱말 교체, 주어 첨가, 반복되는 말 삭제 등이다.

## 7. 공헌과 앞으로의 영향

로스 역 누가복음서 번역의 공헌은 몇 가지로 나누어 정리해 볼 수 있다. 먼저 번역의 관점에서 볼 때, 1) 로스 역 누가복음서는 우리말로 번역된 최초의 성서라고 하는 기념비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로스 팀이 아니어도 누군가는 이 번역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로스의 열정이 이 일을 시작하였고, 매킨타이어와 한국인 동역자들이 신약전서를 완역하기까지 이르렀다. 2) 이 번역은 뒤이어 계속되는 개정자에게는 기초 본문을 제공하였고, 새로운 번역 팀에게는 기초적인 참고 본문을 제공하였고, 후속되는 번역의 문장 구조를 확정짓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뒤이어 계속되는 개정에서는 물론이려니와, 새로운 번역에서도, 책에 따라서는, 로스 역의 문장 구조가 거의 그대로 나타난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뒤이어 계속되는 개정에서는 주로 표기법과 어휘만을 고칠 뿐 문장의 구조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뒤이어 계속되는 새로운 번역에서도 번역자들은 앞서 번역된 로스 역 누가복음서를 참고해 가면서 번역하였을 뿐 아니라 문장 구조의 기본 골격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3) 로스 역에 반영된 여러 가지 신조어<sup>79)</sup>와 우리말 대응어는 뒤이어 계속되는 새로운 성

79) 신조어에 관해서는 이 글에서 충분하게 다루지를 못하였다. 이것에 관해서는 閔泳珍, 「國譯聖書研究」(성광문화사, 1984), 129-143쪽, 특히 142쪽을 참고할 수 있다.

서 번역에서 그대로 채택되었을 만큼, 로스 역이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였다. 4) 한글 전용의 가능성과 타당성을 보여 주었다. 한문 글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한글만으로도 성서 번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켰고, 또 누구나 쉽게 배워서 사용할 수 있는 한글로 성서가 번역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타당성을 실증하였다. 5) 19세기의 서북 방언을 보관하고 있다. 이것이 번역되고 나서, 곧바로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 사이에서는 여기에 사용된 언어가, 서울 중심의 방언이 아니라, 의주 중심의 방언이라는 것을 이유로, 이 번역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기도 하였으나, 어느 번역이 어느 지역 주민의 언어로 번역되는 것은, 번역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하자 없는 것이다. 오히려 지금 이 시점에서 돌이켜 보면, 이 번역이야말로 한 세기 전의 서북 방언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어서 우리말을 연구하는 이들에게나 방언을 연구하는 이들에게 귀중한 자료가 되었다. 6) 이 번역은 우리말로 이루어지는 성서 번역의 기폭제가 되었다. 미국 쪽에서 들어 온 개신교 선교사들은 로스 역보다 더욱 좋은 번역을 내놓으려고 노력하였다. 로스 번역 팀의 공로를 디디고서 로스 번역 팀의 실수의 전철을 밟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

이것이 최초의 번역이었던 만큼, 이것이 번역 외적으로 일으킨 파장도 크다. 특히 인쇄기, 활자, 잉크, 종이, 식자공의 훈련 등, 성서의 인쇄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보급과 기술의 조달 등과 관련된 분야에서 경험적 지식의 축적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성서가 출간되고 나서, 본래 그 목적이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이 책을 사서 보도록 하고 이 책을 통하여 기독교의 도리를 전해야 하는 것이었으므로, 이 책의 출간과 함께 성서의 보급이라고 하는 새로운 과업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였다. 그래서 생겨 난 것이 바로 권서(勸書)라고 하는 새로운 직무의 탄생이었다. 권서는 결코 생활 수단으로서의 직업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전도자의 임무를 겸한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자원 봉사였다. 그러나 전도와 동시에 판매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것이었으므로 서적 판매의 역사와도 관련되어 있다. 곧이어 나타난

---

‘성령(聖靈)’ ‘천국(天國)’ ‘복음(福音)’ ‘회당(會堂)’ ‘제사(祭司)’ ‘인자(人子)’ ‘안찰(按擦)’ ‘축수(祝手)’ ‘선지(先知)’ ‘장노(長老)’ ‘성전(聖殿)’ 등은, 본래 성서의 용어가 아니었으나 그 용어가 성서 번역에서 활용됨으로써, 성서의 용어로 굳어져 버리는 독점화 현상이라든가, 새롭게 만들어진 말이 우리말에서 일반화되는 현상에 관해서는 羅采雲, “國譯聖書에 對한 國語學的 考察 - 聖書國譯의 變遷過程을 中心으로 -”, 『教會와 神學』 (장로회신학대학, 1971), 188-222쪽, 특히 205-208쪽을 참고할 수 있음.

성서 보급소의 설치는 서점의 역사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더욱이 우리 나라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누가복음서를 위시한 로스 번역 팀의 신약전서의 번역과 인쇄가 중국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져서 우리 나라로 들어오는 것이었으므로, 자국어 번역이나 타국어 번역의 종교서적이 국경을 넘어 밀 반입되거나, 국경 지대의 육로(陸路) 세관이나, 부산이나 인천과 같은 항만의 세관을 거쳐 들어 올 때, 통관에 관한 절차 등 새로운 문제를 야기했을 것이다. 이제는 여러 나라말로 번역된 성서들이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수입도 되고 수출도 되지만, 이러한 일이 성사되기까지 축적된 경험의 제일 밑바닥에는 바로 로스 역 성서의 국내 반입경험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그 가치에 있어서는 오히려 첫째로 꼽힐 것이, 바로 로스 역 누가복음서의 번역과 출간이 우리 나라의 기독교의 초석이 되었다는 것이다.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와 영국성서공회로 하여금 한국어 성서 보급의 필요와 보람을 느껴, 실천하게 하였고, 우리 민족은 외국 선교 단체와 만나기에 앞서, 한만 국경지대에 살던 우리의 유랑민과 나라 안에 살던 국민이 우리말로 된 복음서를 읽으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었으니, 이 번역이 우리 나라 기독교의 토대를 형성하였다는 것은 결코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대한성서공회의 설립이 그만큼 빨랐던 것도 이러한 번역과 출판과 반포에 힘입은 바 크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 8. 새로운 과제

이미 서지학자들과 국어학자들과 역사가들이 각기 그들의 전문적인 분야에서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1882)를 고찰하였다. 1998년 1월에 이 책이 대한성서공회로 기증되어 들어옴으로써, 다시 한 번 이 번역에 대한 연구가 활기를 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된다. 특히 이 번역의 대본 구실을 한 문리역과의 번역 비교를 통하여 로스 역 누가복음서의 번역 특징에 관한 연구가 더욱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비평적으로 편집된 그리스어 신약 본문과의 비교를 통하여 로스 역의 본문비평 정도를 더욱 체계적으로 밝힐 수도 있을 것이다.

로스 역 누가복음서 초판을 더욱 편리하게 다룰 수 있도록 거기에다가 절 구분 표시를 하고, 띄어쓰기를 하고, 구두점을 사용하는 새로운 편집을

할 필요도 있다. 이 번역의 어휘집을 만드는 일, 「한불사전」의 어휘와 비교해 보면서 어휘 발달사의 한 측면을 보는 일도 새로운 과제 중에 하나일 것이다. 또 어구사전을 만들어 이 책을 더욱더 세밀하게 연구할 수 있는 자료로 제공할 필요도 있다. 또한 거듭 개정되는 누가복음서의 개정 내용을 일별할 수 있는 편집도 기대가 된다.